

# 공공경제

www.kipf.re.kr

## 연중기획\_안전

산업안전 패트룰, 116명의 생명을 지키다  
건설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건설사고를 줄인다

## CEO 인터뷰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 기획특집\_공공기관 재무관리

정책리포트     코로나19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전문가의 눈 I    코로나19 위기와 공공기관의 재무관리방안  
전문가의 눈 II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다시 생각한다  
ISSUE&TALK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재무관리 방향 모색



# 『공공경제』와 함께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는  
“ 공공기관 정책과 사례, 이슈를 바탕으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경제』가 기관과 정부, 국민 간의 공감과 혁신,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



# 국가적 위기,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과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돌파해야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경제』 가을호에서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가면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다.”라는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어 어느 때보다 공공부문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 차례 추경을 포함해 총 277조 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8월 발간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위기 대응에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하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OECD 국가 중 최초로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국민 체감성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예산은 정부예산의 1.3배(648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정부는 ‘조타수’를 잡고, 공공기관은 ‘노’를 저어 추진력이 배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들도 올 한 해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 국민생활을 지키고 경제여건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공기관들이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을 앞장서 실천하면서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적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은 현재 위기를 타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미래 재정위험을 감안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채무증가속도에는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으로서 충실히 역할하는 동시에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은 난제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칼’과 같은 묘안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무엇보다 과감한 재정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감안해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던 출연·보조 사업의 필요성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역시 경영 효율화, 비핵심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리스크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건전성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달성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혁신을 위한 작은 씨앗이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ontents



### 권두언

- 03 국가적 위기,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과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돌파해야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 연중기획\_안전

- 08 산업안전 패트롤, 116명의 생명을 지키다  
류장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총괄본부장
- 13 건설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건설사고를 줄인다  
석인호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장(직무대리)

### 기획특집\_공공기관 재무관리

- 18 정책리포트  
코로나19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정남희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
- 20 전문가의 눈 I  
코로나19 위기와 공공기관의 재무관리방안  
전광섭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3 전문가의 눈 II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다시 생각한다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5 ISSUE&TALK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재무관리 방향 모색

### CEO 인터뷰

- 32 혁신적 디지털 전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합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38 바람직한 '주식회사 한전'의 거버넌스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 공공기관 정책동향

### 44 공공기관 주요 정책동향

## 글로벌리포트

### 46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K-water의 해외 진출과 국제협력

이주환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협력처 글로벌협력1부 과장

## 공공혁신 이야기

### 54 광해방지 신기술 MIRECO EYE와 함께하는 국민 지하안전 확보

한국광해관리공단

### 59 해양사고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소형선박 조난신호 전달체계 혁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공공기관 채용정보

### 64 공공기관 잡앤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 70 나의 취업성공기 I

대졸 취업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편견은 No No No!

정동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발전소운영실 화학기술부 주임

### 72 나의 취업성공기 II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채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활동협력부 사원



## 이번 공공경제 Vol.03은 어떠셨나요?

「공공경제」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과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아쉬웠던 점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셔서 담당자 이메일(soe@kipf.re.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3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독자분께는 보내주시는 연락처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 공공경제

「공공경제」 2020년 Vol.03

발행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인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편집위원	변민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장 직무대리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혁신연구팀장 민경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연구팀장
편집간사	유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제작지원	소병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김정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강연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위촉연구원 최연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위촉연구원

자문위원	김동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남궁덕 포항공과대학교 교육혁신센터 교수
------	---

편집	김석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장 조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위촉전문원
----	---

발행일	2020년 9월 30일
등록일	2020년 5월 13일(세종 바 00032)

디자인/제작 고려씨엔피

\* 「공공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공공경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우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전화** (044) 414-2407

**이메일** soe@kipf.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구독료** 권당 3,000원 (1년 정기구독 10,000원)

**납부방법** 온라인입금  
우리은행 1005-103-961530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중기획〉 코너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의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패트를 점검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올 하반기 사업추진방향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공사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산업 현장과 건설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 기관별 노력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 연중기획 안전

산업안전 패트롤, 116명의 생명을 지키다\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건설사고를 줄인다\_한국시설안전공단



# 0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 패트roller, 116명의 생명을 지키다

현장중심 · 불시점검 ‘사고사망예방 특별기획점검’ 추진



류장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총괄본부장

###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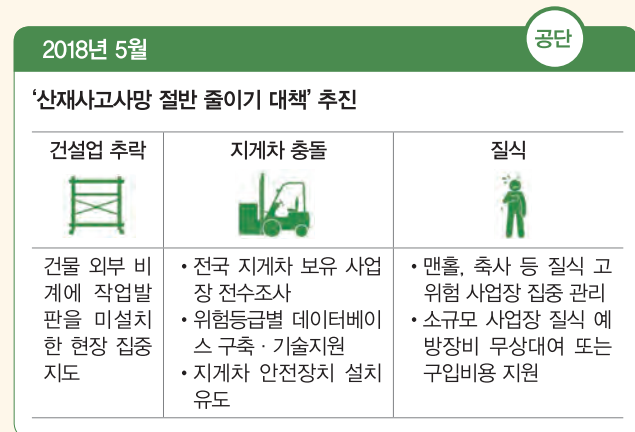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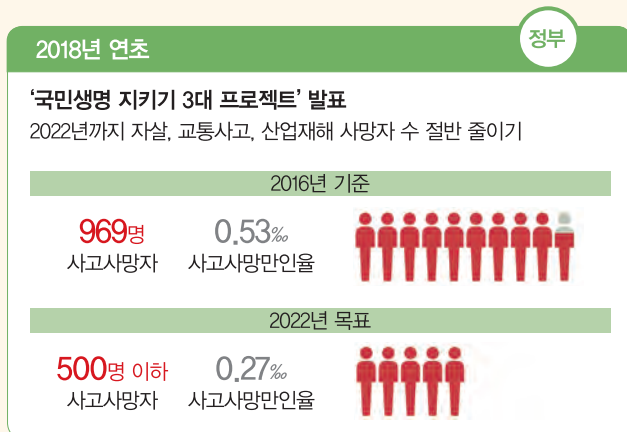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산업 현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단은 1987년 12월 9일 설립돼 지난 30여 년간 산재예방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단 창립 이후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률)은 3.29%에서 2019년 기준 1.08%로, 산업재해율은 2.66%에서 0.58%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그동안 산재예방사업 대상 사업장 수가 약 32.1배 늘고, 근로자 수는 3.5배 증가한 상황에서 이룬 값진 성과인지라 더욱 의미 있

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일반 재해를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과 산재보상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사망사고는 일상과 가족의 품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반영해 최근 일반 재해 예방에서 사망사고 감소로 산재예방 중심축을 전환했다.

###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 마련

정부는 2018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



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산업재해의 경우 2016년 969명의 사고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500명 이하로 줄이고,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을 0.53%에서 0.27%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재예방 중심기관인 공단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2018년 5월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산재예방사업을 사망사고 예방 중심으로 재편했다. 산업재해 통계를 기반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업대상이 명확하며, 사업효과가 확실히 예측되는 사고유형(건설업 추락, 지게차 충돌, 질식) 및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이에 따라 조직을 기존의 기능별 조직에서 산재예방 종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일하는 조직'으로 정비해 사업추진 효과를 높였다.

### '사고사망 감소 100일 특별대책' 추진

공단은 2019년 사망사고 감소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2018년에 추진한 예방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곳(추락)과 사망사고 급증이 예상되는 곳(화학공장, 조선업)에 산재예방 역량을 집중 투입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현장 중심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창립 30년 만에 산재예방 조직도 전면 개편했다.

먼저, 추락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업장(중·고위험

〈표〉 업종별 산재 사고사망자 통계(2019년 6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2018. 6.	2019. 6.	증감	증감률
건설업	235	229	-6	-2.6
제조업	117	108	-9	-7.7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151	128	-23	-15.2
계	503	465	-38	-7.6

등급)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현장은 고용노동부 감독이 이뤄졌다. 국내 9대 대형조선소는 신규 작업 시 공단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격주 단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밀착관리에 나섰다.

아울러 끼임, 화재·폭발 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대형 화학공장을 중심으로 월 1회 이상 기술점검을 실시하고, 정비·보수 과정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키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상반기 전 업종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사망자 수가 6명 감소하는 데 그쳤고,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62%(142명)가 추락으로 사망했다. 제조업은 9명만 감소했을 뿐 끼임과 질식 등으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2019년 7월 공단은 사업 추진방식을 패트를 점검방식으로 전환하는 '사고사망 감소 100일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

2019년 상반기

공단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곳(추락), 사망사고 급증이 예상되는 곳(화학공장, 조선업)에 산재예방 역량 집중

추락	화학공장, 조선업
	
12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사업장(중·고위험 등급) 대상 월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 → 불량 현장은 고용노동부 감독 요청	• 국가 산업단지 내 대형 화학공장 대상 월1회 이상의 기술점검 • 9대 대형조선소 신규작업 밀착 관리

2019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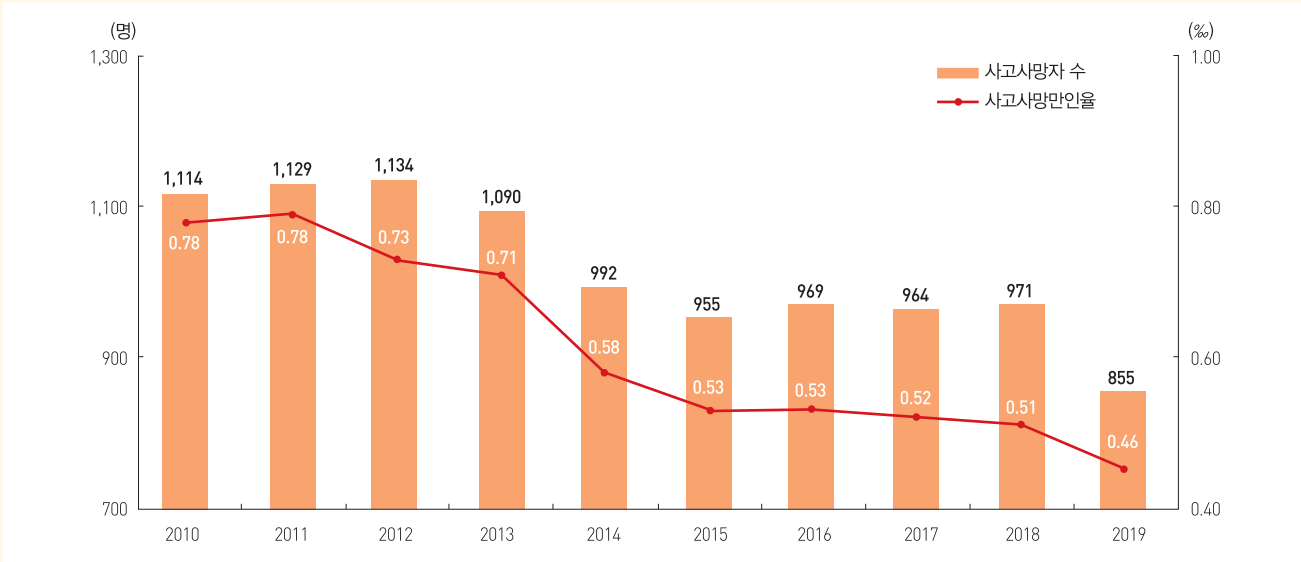
공단

'사망사고 감소 100일 특별대책' 실시

- 패트를 점검방식으로 추락, 끼임,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불시점검 실시
- 소규모 건설 현장 밀집지역 등 산재 취약현장을 집중점검



[그림 1]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진했다. '사고사망자 수 절반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 현장 추락, 제조업 끼임, 밀폐공간 질식 등 사망사고 다발영역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결국 전국에서 추락, 끼임,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패트롤 방식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패트롤 점검은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2인 1조의 점검반이 위험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사고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인 현장의 위험요소를 찾아 즉시 경고하고 시정하거나 기간 내 반드시 개선토록 하는 방식이다.

1,158명의 공단 일선기관 및 본부 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전국의 산재 취약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지역의 사고사망자 분포·발생추이·계절적 요소 등을 고려해 우선점검대상을 선정하고, 패트롤 점검차량 27대를 신규 투입했다. 공단 점검과 함께 고용노동부 감독 연계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불량 현장은 반드시 개선한다'는 인식을 현장에 확산시켜 산재예방의 효과를 제고했다.

이와 같은 '패트롤 점검-감독과의 연계'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9월부터는 '개선조치 불이행=처벌(감독)' 원칙에 따라 현장에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

선율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 감소폭이 눈에 띄게 확대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역대 최대 사고사망자 감소 성과 달성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사고사망 감소 100일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16명 감소한 8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고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한 것이자 역대 최대 성과이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51%에서 0.46%으로 감소해 최초로 0.4%대로 진입하게 됐다.

### 패트롤, 정식사업으로 편성하고 점검범위 확대하다

산업 현장의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한 결과,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까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공단은 2020년 사고사망자 수를 줄여(130명) 700명대에 진입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사망사고 등 악성 산재 관리를 강화하며, 반복되는 재래형 사고 등 안전보건 이슈에 적극

대응해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사고사망자 감소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패트롤 점검을 정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사업내용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했던 점검범위를 제조업으로 확대해 끼임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끼임 위험요인을 반드시 개선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불량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독을 지속적으로 연계토록 했다.

건설업은 2019년에 이어 패트롤의 성과 가속화를 위해 공사규모별로 패트롤 점검방식을 차별화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했다. 제조업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랜덤방식과 데이터 기반 방식을 접목한 '30-30-3 방식'\*으로 추진했다.

\* 30-30-3 방식: 전 제조업체(약 37만개, 100%)에 특별기획점검(패트롤) 실시 고지 →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끼임 위험 사업장 재선정(11만개, 30%) → 타깃사업장 특별기획점검(패트롤) 수행(3만 5천개, 30%), 끼임 위험 예방조치(LOTO, Lock-Out Tag-Out) 집중점검 → 미이행 불량사업장 고용노동부 감독 연계(약 1천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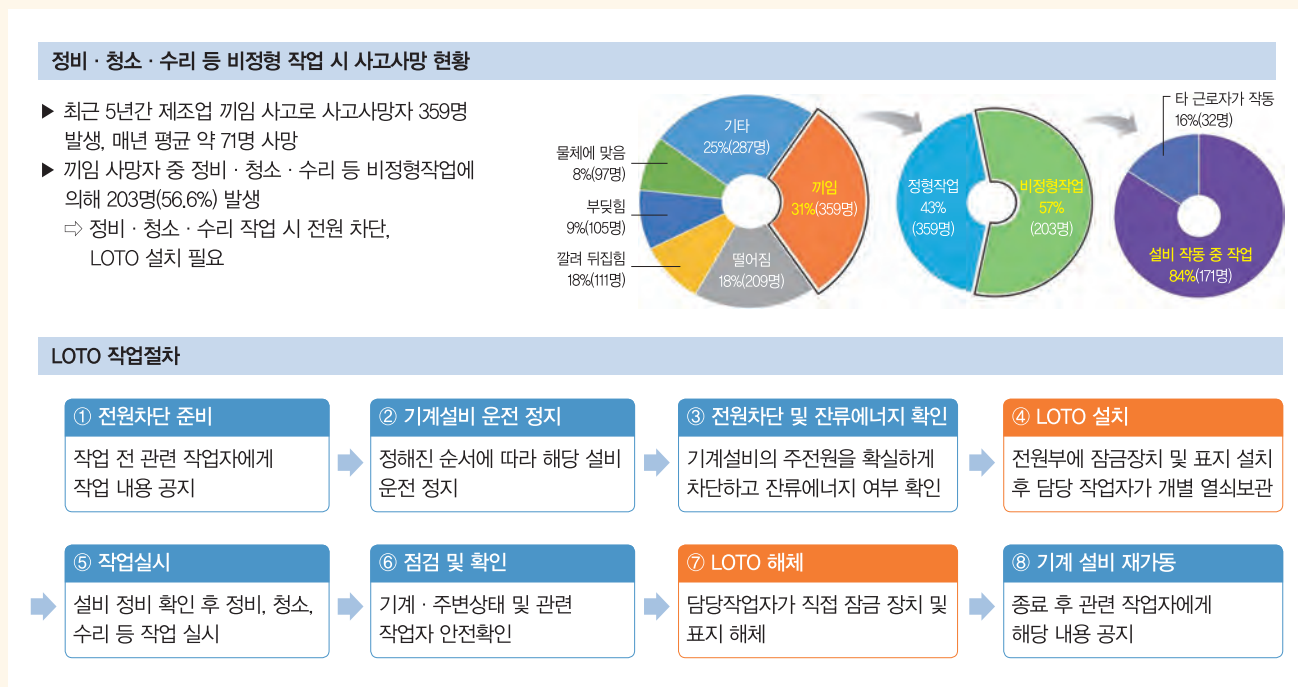
## 코로나19, 사망사고 감축방향 전환의 계기

2020년 우리 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공단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면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중점 예방사업인 패트롤 점검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 제한된 공간에서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제조업 패트롤을 잠정 유보했다. 건설업은 현장점검을 실시하되, 패트롤카드 등을 이용해 대면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현장에 마스크를 제공함은 물론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등을 병행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도 패트롤 점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코로나 버전 특별기획점검지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산업 현장에서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대응했다. 공단은 소규모 건설 현장,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외국인 고용사업장 및 고객응대 업무가 많은 마트 등 감염병에 취약한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보급했다. 한편 집단

[그림 2] 제조업 LOTO(잠금·표지장치) 작업절차



감염이 발생했던 콜센터에는 간이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등의 구입비용을 긴급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지난 4월 말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 현장 대규모 화재사고는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대규모 사망사고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안전보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올해도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고사망 위험사업장 감시체계에 집중하며 대형 사고에 대응해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추경사업과 연계해 사업장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사업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환했다.

첫째, 패트롤 점검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적은 건설업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예방 역량에 집중해 추락 및 화재 예방 중심, 감독 연계를 한층 강화한다. 제조업은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고려해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망사

고 다발 지역에 집중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둘째, 추경사업을 통해 확보된 약 8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순찰, 점검효과가 높은 패트롤가 운영을 확대(27→59대)한다. 안전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토탈-솔루션 서비스’로 패트롤 점검과 화재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집중 실시함으로써 산업 현장 위험요인 개선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안전보건 및 사고위험 정보 등이 반영된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화·체계화된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험영역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선순환되는 ‘중소제조업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021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감축 목표를 완수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안전을 책임지는 공단’, ‘안전으로 신뢰받는 공단’, ‘안전을 선도하는 공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02

한국시설안전공단

## 건설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건설사고를 줄인다



석인호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장(직무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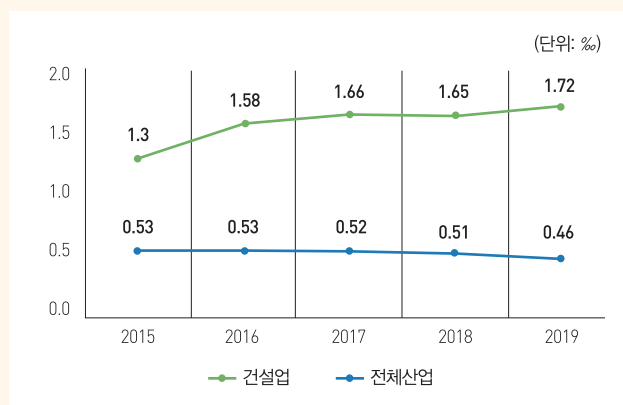
### 건설안전의 현 주소를 파악하다

정부는 '안전' 문제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삼고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특히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절반(2017년 사망자 수 506명 → 2022년 사망자 수 253명)으로 줄이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뚜렷한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건설업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망자 수의 비율, %)은 전체 산업재해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타 산업 대비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편이며,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절반(855명 중 428명, 50.1%)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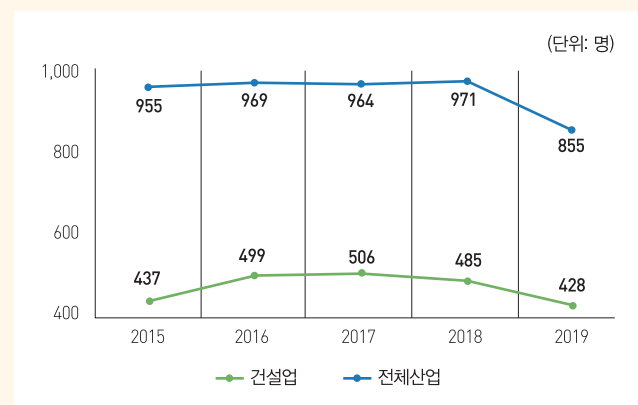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공공 건설공사 사망자는 2018년 대비 2019년 대폭 감소(40명, 33.1%)했으나, 민간 건설공사 현장의 사망자는 감소폭(17명, 4.7%)이 미미하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 민간발주 50억 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사망자는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절반 이상(428명 중 235명, 55%)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사망만인율(전체산업, 건설업)



자료: '건설안전 혁신방안', 2020. 4. 23.

[그림 2] 연도별 산재사고 사망자



자료: '건설안전 혁신방안', 2020. 4. 23.

〈표〉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공공			민간		
	2018	2019	증감	2018	2019	증감	2018	2019	증감
합계	485	428	-57(-11.8)	121	81	-40(-33.1)	364	347	-17(-4.7)
50억원 이하	323	283	-40	85	48	-37	238	235	-3
50억~300억원	64	55	-9	27	16	-11	37	39	2
300억원 이상	87	84	-3	9	17	8	78	67	-11
기타	11	6	-5	-	-	-	11	6	-5

자료: '건설안전 혁신방안', 2020. 4. 23.

###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

대부분의 제도 및 정책은 관리가 용이한 중·대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실행돼 왔다. 하지만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지도·점검 인력 또한 충분치 않아 현장점검 등을 통한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안전관리 제도와 정책이 이행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준공된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 기능을 건설안전까지 확대해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할 예정('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 2020년 12월 10일)이다. 설계부터 시공, 준공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건설공사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건설안전 관련 통합법 제정과 전문 조직 구성

정부는 2020년 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령별 안전관리 규정을 총괄 관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

을 별도로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에 규정된 안전 관련 책임·절차 등을 정비해 법령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안전특별법(가칭)'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현장 중심의 건설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기대된다.

올해 12월에 출범될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에 앞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설계안전성을 검토하고 건설공사 중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건설 전 과정에 대해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안전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건설안전 조직에 통합될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의 건설현장 감리 경험 등을 고려해 건설공사의 공종별(가설, 굴착, 콘크리트, 강구조, 타워크레인 공사 등)로 안전점검 전문가 그룹을 분류함으로써 인력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전문성을 강화해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건설공사의 생애주기 맞춤형 안전관리

#### □ 건설공사 전 위험요소 발굴·제거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은 시공단계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며, 시공 이전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설계와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단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착공 전에 위험요소를 발굴해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 검토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외에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와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 민간 건설공사에서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려 한다. 올해에는 36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2021년부터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 제도와 정책의 현장 이행력 확보

건설공사 중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역량이 미흡하고 건설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50억원 이하 소규모 현장[10억~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 13,719개(국가통계포털, 2016~2018년 평균)]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2022년부터는 점검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을 점검할 때에는 건설공사 중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공종(공사종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공사 중 안전점검 적정 시행 여부, 가설구조물 설치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기술컨설팅을 진행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목소리가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에 반영되도록 개선사항 등을 도출할 것이다. 더불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유도하는 싱가포르의 bizSAFE Program과 시공과정에서의 참여자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영국의 CDM제도 등 우수한 해외 건설안전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자 한다.

#### □ 건설공사 안전관리 문화 정착

총 공사기간 중 50% 이상이 진행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수준이 낮은 참여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추진 중이며, 올해 시범사업을 거친 후 맞춤형 지원 대

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안전관리 제도와 정책의 이해, 현장 위험요소의 발굴 및 예방수칙 등의 교육 지원을 준비 중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 디지털 기반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전관리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건설 관련 학회 및 협회를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 발생했던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를 분석함으로써 위험공종 및 예방수칙 등을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사고경고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위탁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시스템의 자동발송기능을 이용해 사고위험 요소를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로 전송한다. 또한 재난에 대비해 건설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고가 예상되는 공종 및 가설물과 관련된 건설 현장 담당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지난 8월 전국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집중호우와 8·9호 태풍인 '바비'와 '마이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강풍·강우에 취약할 만한 건설 현장 관련자에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 안전관리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인식 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수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안전관리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건설공사 현장 이력관리 정보,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된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해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면 공사 현장의 불안정한 작업 환경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설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예방적 시설관리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건설공사 참여자들 또한 안전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인식을 함께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재무관리'를 주제로 한 <기획특집>은 총 세 개의 코너로 구성돼 있다. '정책리포트'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현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공공기관을 살펴본다.

'전문가의 눈 I & II'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재무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ISSUE&TALK'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방안, 공공기관 재무관리 정책의 효과 및 방향성에 관해 논의한다.



# 기획특집

## 공공기관 재무관리

정책리포트

■ 코로나19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전문가의 눈

■ 코로나19 위기와 공공기관의 재무관리방안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다시 생각한다

ISSUE&TALK

■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재무관리 방향 모색



# 코로나19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정남희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

코로나19는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삶, 모든 차원에서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은 직접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일보다 배달음식을 시키고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일이 훨씬 잦아졌다. 소상공인들은 줄어드는 손님에 임대료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했다. 대기업·중견기업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항공업, 면세점 등 해외여행 관련 업종, 서비스업 등 너나 할 것 없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등의 대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3차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며 전 세계적인 경기 하방압력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 코로나19 위기에서 빛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 340여 개 공공기관들이 하반기 소비지출 계획을 상반기로 앞당겨 지출하는 선결제·선지급에 동참해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각 공공기관별로 입주 임대료·시설사용료 감면, 주택·무역 관련 보증료 인하, 특별재난지역 최대 50% 건강보험료 경감 등 소상공인·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최소화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 2020년 공공기관 재무현황

공공기관은 이렇게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부채는 약 521조 6천억원, 부채비율은 172.2%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24조 4천억원, 5.1%p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공부문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감수하기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

상술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한쪽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 중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

철도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에 따른 타격이 큰 기관들은 총 8조 3천억원의 수입이 감소했다. 한편 임대료 감면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든 비용은 총 3조 6천억원 정도이다. 각 공공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등에서 이를 충당하거나 부족 자금을 금융권에서 차입해 경영 악화 상황을 이겨 나가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상 수치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간 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공공기관의 재무실적 악화는 비효율과 방만 경영의 결과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영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투자

공공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다. 산업과 생활 전반에 필수적인 전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공급은 경기상황에 따라 멈출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공공기관들은 어려운 경영여건 가운데서도 미래를 준비하며 필요한 투자를 해나간다. 물론 공공기관의 투자도 필수재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업투자 본연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올해 초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동안의 투자계획을 60조원에서 60조 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6월에는 하반기 투자계획을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하는 방안에도 적극 동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지, 해외사업 취소 등 집행여건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선금지급·대체사업발굴 등으로 일선에서부터 경영진까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공공기관 자구노력을 기대

경영여건 악화에 맞서 각 공공기관들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공기업들은 전력그룹사 재무개선회의체를 운영해 공급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신사

업 리스크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투자사업의 위험관리와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해 지출 효율화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올해에만 30여 개의 과제를 선정해 보험급여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 상환 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자본 증가 규모 이내로 제한하는 '회계적 Pay Go 원칙'을 수립해 적용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을 시설유지관리비로 나눈 값인 통행료 수지율이 1 이상인 범위 내에서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준칙 도입을 검토 중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예산 절감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책을 고민해 실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는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매년 주요 공공기관의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중장기 재무전망을 점검한다. 올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코로나19였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기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때 공공기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무제표상의 숫자와 드러나지 않는 미래적 가치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효율성 위주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될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속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전문가의 눈 |

# 코로나19 위기와 공공기관의 재무관리방안



전광섭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최근의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

글로벌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전망은 다소 비관적인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는 주요국의 봉쇄 완화나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조금은 반등하고 있으나 미국과 신흥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규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충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하반기 경기회복은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기의 경우 6월 중 빠른 반등세를 보였으나 이는 야외활동의 재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그동안 억제된 대기수요가 집중된 데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이후에는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 영향으로 4분기에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왜냐하면 세계경제의 느린 회복, 자국 우선주의의 확대로 하반기에도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코로나19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가 확산되면서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 이용객이 급감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주)SR·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염병은 공기업들의 매출액과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여러 경영 지표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곳은 항공 공기업이다. 코로나19 영향과 관련된 이들의 경우 매출감소에 따른 수익감소는 물론 당기순손실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 전반의 재무건전성 현황과 재무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현황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에 근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2020년 현재 총 340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 공공기관 209개가 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총수입·총지출 금액은 645조 5천억원이며, 2018년 639조 4천억원 대비 6조 1천억원 증가했다. 자산 규모도 861조 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 8천억원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전기·수도·가스·철도 등 중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이 예산

을 적절하게 집행해,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2020년 4월 기준, 공공기관의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 공시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2019회계연도 자산총액은 861조 1천억원, 부채총액은 525조 1천억원, 당기순이익은 6천억원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32조 8천억원, 부채는 21조 4천억원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천억원 감소했다.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156.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 2015년 30.4%에서 2018년 26.5%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 또한 2019년에는 27.4%로, 2018년 대비 0.9%p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해 이익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관의 경우 투자 등을 위한 자금 부족액을 주로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므로 공공기관의 부채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보다는 축소됐지만 공기업 부채가 국가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심한 부채 관리가 중요해졌다. 코로나19의 파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공기업들의 경영난도 장기화될 수 있어, 이들이 정책 사업과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진 만큼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못지않게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중요한 시점이다.

### 공공기관 재무관리방안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인식을 시작으로 부채관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증가하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국가 재정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규모가 부채상환능력을 초

과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는 문제를 인식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관리방안이 시행된 것이다. 2012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493조원으로 부채비율은 208%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 부채 규모 290조원, 부채비율 133%에 대비해 4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가 70%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대비 비율도 2008년 93.9%에서 2012년 111.2%로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고,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채관리에 집중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수치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위기가 한몫할 것으로 보여 수익성 부문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몇 가지 공공기관의 재무관리방안이 더욱 필요하다.

첫째, 지속해서 감소하던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GDP 대비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이 최근 증가세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9조의2와 「공운법」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라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 또는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39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주요 기관에 재무 전망 및 부채관리계획 등이 포함돼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부채 등 재무 상황과 관련해 국가의 재정 부담과 연계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차입부채를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중심으로 재무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차입부채를 조달함으로써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기관에 대해 재무건전성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 기획특집

### 공공기관 재무관리

이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재무안정성 등 경영 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익성 개선방안 및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기업 채권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재무건전성 관리도 필요하다. 최근 공기업 사채발행 조달 이자율의 국가 보증에 대한 공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사채발행액 등과 관련해 각 공기업별로 재무건전성 관리를 세심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지난 2019년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공기업을 제외한 외부차입이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사채발행 잔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계획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해 이익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기업의 경우 투자 등을 위한 자금 부족액을 주로 사채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사채는 각 기관의 세부적인 재무건전성과는 별개로 국가의 암묵적인 보증을 바탕으로 발행돼 쉽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일반 회사채에 비해 약한 수준이다. 따

라서 정부는 우발채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 독자 신용등급과 최종 신용등급과의 차이 확대,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사채발행액 등과 관련해 각 공기업별로 세심한 재무건전성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부채 등 공공부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국가 재정건전성 분석 시 국가채무(D1)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의 증가 추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관계는 조직의 목표달성과 존립을 위해 자원배분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설정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자원과 권력을 획득하려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은 각자 개별 조직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는데,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공공기관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특성을 가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재무건전성이란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의 눈 II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다시 생각한다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와 수익성 악화 추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공시결과를 보면, 340개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 증가율이 지난 5년간 최고치인 4.2%이며, 2013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던 부채비율도 2019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당기순이익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수준인 6천억원에 그쳤다. 2019년도에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각 2조 3천억원과 3조 6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경영악화로 배당금의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할 만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목적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독립된 법인격이라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독립된 법인격이라는 말에는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과 더불어 재정의 독립성이 포함된다. 재정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독립채산제가 필수적이다. 즉 공공기관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스스로 재정의 독립을 이뤄가려는 노력, 다른 말로 하면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통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필자는 평소 적당한 수준의 부채는 공공기관에 독보다는 약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 이유는 조직에 필연적인, 특히 공공기관에는 더욱 심각한 '주인-대리인 문제' 때문이다. 어느 조직이나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이해의 충돌이 일어나고, 대리인인 기업의 경영자나 직원들은 조직의 주인 혹은 주주의 이익보다는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주인은 이러한 대리인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인에 대한 감시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일반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의 경우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주인 수는 사기업보다 훨씬 많아 주인의 감시 유인(monitoring incentive)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주무부처가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는 소위 복대리(複代理) 문제가 발생해 공공기관이 국민보다는 주무부처나 기관 구성원을 위해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각한 주인-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부채의 규율효과(disciplinary effect)이다. 즉 대리인에게 부채는 상환해야 할 재무적인 부담,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추가적인 경영 효율의 압박으로 작용해, 대리인의 자기 통제와 비용 절감 등의 경영효율화 효과를 가져 오는 것

## 기획특집

### 공공기관 재무관리

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부채의 규율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 추구를 위해 스스로 부채 규모를 결정해 부채 상환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부채가 기업의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부채 증가가 기관 스스로 결정할 사업의 확장이나 본연의 사업 추구보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악화된 재무 상황과 부채 증가는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책임의식과 경영효율화를 통한 상환의지를 약화시켜 부채규율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이자보상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 이하로 떨어지는 공공기관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부채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공기업의 재무 상황 악화는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2019년도에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금융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부채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BIS비율(자기자본비율) 또한 전년 대비 악화됐다. 현재 금융공기업의 BIS비율은 시중은행에 비해서도 낮아 금융공기업의 건전성이 더 악화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세 차례 추경으로 2020년 말 GDP 대비

국가 부채는 43%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 그리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은 정부의 역할 증가와 함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고유의 사업을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이 정부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상황을 만든다면 이는 국가 재정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고,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맞는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연의 설립 목적에 벗어난 공공성의 추구는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관의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려워져 기관의 존재 필요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300개 이상의 공공기관들은 2013년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과도하게 증가된 부채와 방만경영의 감축을 힘들게 실천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아픔을 함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와 수익성 악화는 과거에 겪었던 아픔을 재현할 우려가 있다. 성화요원(星火燎原)이라 했다. 작은 불씨가 넓은 들을 태우지 않도록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재무관리 방향 모색

■ 일자

2020년 8월 28일(금)

■ 장소

토즈(TOZ) 압구정센터

■ 사회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참석자

공병철(한국전력공사 자금결산실장)

김기환(한국도로공사 자금실장)

김충원(삼정회계법인 회계사)

남궁덕(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세우(상지대학교 교수)

■ 정리

강연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위촉연구원

※ ISSUE&TALK 원고 내용은 참석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각 참석자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편집자 주).



**배근호(사회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연구센터 ISSUE&TALK 좌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좌담회 주제는 공공기관의 재무관리방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가치가 크게 강조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하다 보면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나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는데, 이를 포함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준 공공기관 재무결산 자료에 따르면 총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GDP 대비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의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의 공존방안은 없을지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용 수반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과도한 지출은 자칫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상존하므로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공성과 수익성 실현이라는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무적 관점에서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천편일률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고 사회적 가치와 공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궁덕** 이세우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률적으로 무자르듯이 사회적 가치 비중을 늘리는 것은 공공기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내야 하는 조직이므로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려면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안분하는 시스템을 논의해야 합니다.



**김충원** 저도 두 분의 생각과 같습니다. 우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해야 합니다. 공기업은 지속가능한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되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투자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배분해야 합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이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즉 사회적 가치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목적사업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목적사업이 사회적 가치에 맞는 공기업은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늘려 평가하고, 목적사업이 사회적 가치와 동떨어져 있고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관들은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부문을 비계량으로 평가하는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김기환** 공기업 입장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은 평소

문제이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가치의 추구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유형 분류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현 상황에서는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올해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임대보증금 중 절반을 반환하고,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통행료 감면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하기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지표를 가지고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병철** 교수님들 말씀처럼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도 중

장기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 경영여건을 고려해 실정에 맞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성이 강한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을 중요시하는 한전의 해외 주주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을 통한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이 주요 투자 의사 결정의 핵심 사항으로 부각됨에 따라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가릴 것 없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부쩍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SK의

경우 재무제표에 순이익 이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성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란 쉽지 않지만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이 보다 강화된다면 양자 간에 조금 더 유연한 조화를 이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이라도 사회적 가치를 등한 시하면 지속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 효율 제고와 신규 먹거리 창출로 수익성을 높인다면 여유자금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시 수익성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일수록 경영 자율성 확대로 인한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상호 조화와 시너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배근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같은 공익적 측면과 함께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측면도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 전까지 공공기관의 방만한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2018~2019년도의 재무상태를 보면 당기순이익은 다소 줄어들고, 부채는 약간 늘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재무관리 정책의 효과,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남궁덕** 최근에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충원**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부채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떨어진 것은 착시효과로 보이며, 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닙니다. 현재 부채 규모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8일을 기준으로 G20의 코로나19 대응 재정확대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확대했던 재정 규모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수요도 위축되며 대량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공공기관이 감내할 수 있는 부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세우** 정부의 공공기관 재무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은 관리 가능한 안정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

공기관의 부채 증가요인을 살펴볼 때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전을 비롯한 2개 공공기관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의해 부채가 증가한 부분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의 증가로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부담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중장기 재무관리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만성적인 목표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채 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기환** 한국도로공사의 현황으로는 올해 부채비율은 81%로, 지난해 수치인 80.8%를 넘어 약간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SOC·에너지 부문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공사도 건설 부문에서 매년 4조 2천억원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공병철** 한전은 연료가격 등 외생변수 변동성으로 인해 경영실적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연료가격이 높을 때는

## 기획특집

### 공공기관 재무관리

큰 적자가 발생하고, 연료가격이 급락하면 흑자로 바뀝니다.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료가격 상승 등은 자구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요금체계 개편 등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부채 증가원인을 분석해 보면 환경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약 8천억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RPS(신재생의무부담금), ETS(온실가스배출부담금) 등 다양한 환경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선비와 감가상각비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부채증가 이유를 원인별로 분석해서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검토해 공공기관 부채나 차입금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근호** 다음 질문으로 기업들의 향후 먹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며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해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외 진출은 조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공병철** 공기업의 신규 먹거리 창출 전략은 해외사업 진출과 신규 사업 참여 등 두 가지 분야에서 생각할 수 있습

니다. 한전은 신규 사업 추진원칙을 본연의 사업과 연관성이 크고 핵심역량을 활용해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로 정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전력 빅데이터 융합센터 개소와 함께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 뉴 비즈(New Biz)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너지비즈니스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발전소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은 1995년 해외 진출 이후 누계 매출액 36조 4천 억원에 이르고, 건설·기자재·금융 등의 분야에 국내 기업들과 동반 진출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해외사업은 사업타당성과 환경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신재생, 가스발전 등 저탄소·친환경 사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한국도로공사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로 스마트 고속도로를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도로를 유지관리해 스마트하게 체크하고,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산업 관련 투자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손실이 나지 않도록 가성비와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외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기업 전체에서 SOC사업의 비중이 2015년 기준 26조 1천억원에서 2020년에는 23조로 감소한 것을 국내 사업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많은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형태로 해외에 진출해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유지관리(O&M)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PPP를 하려면 지분투자를 해야 하는데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익 비중이 작고 리스크(위험) 관리가 어려워 지분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세우**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해 정부도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리스크가 큽니다. 이에 민간기업과 협력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들도 BCG(보스턴컨설팅그룹)나 맥킨지 등 전문컨설팅 기관에 전략 컨설팅을 받기를 제안해 봅니다. 공공기관이 현 상태로 향후 생존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해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궁덕**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인데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은 흔히 예상되는 삼성이나 공기업이 아닌 SKT, NHN, 카카오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관련 기관 및 인력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기관에서 먼저 투자를 제안하는 등의 열린 시각과 행정이 필요합니다.



**김충원** 공공기관은 설립취지나 목적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율성이나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민간기업보다 좁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기관의 체질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이고 민간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 자본과 민간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공공기관이 초기에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민간업체를 지원하고 향후에 이들이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파트너십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디지털 복지정책에서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민복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미래 먹거리와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병철** 회계사님 의견에 더해 한전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 등의 공공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1인 가구의 비정상적 전력 사용을 감지했을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알람을 제공하는 '취약계층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 사용량과 유동인구 등 전력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 취약지역 분석서비스'를 통해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근호**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자

회사를 설립했고, 한전도 자회사가 많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자회사 관리의 필요성 및 방향성은 무엇이고 자회사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관리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자회사 관리의 방향은 한전을 포함한 전력그룹 전체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상호 경쟁보다는 협업이나 상생을 통해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자회사 등은 2011년부터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한전이 모회사로서 경영 참여가 어렵게 됐습니다.

발전 자회사들은 IFRS 기준상 연결기준 종속회사로서 모든 손익과 재무상태가 한전 실적으로 집계되고 국내외로 공시됩니다. 따라서 한전은 지배회사로서 전력그룹 전체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거버넌스에서도 전력그룹 재무개선 TF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력그룹 공동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발전 자회사에 비상임이사를 파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자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회사들은 설립부터 관리, 운영, 성과평가, 조정·정리 등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관점에서,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사업성 출자

## 기획특집

### 공공기관 재무관리

회사와 비사업성 출자회사로 구분됩니다. 이 중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성 출자회사는 사업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동시에 평가·관리하고, 투자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사업성 출자회사(예를 들면 비정규직 정규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는 시장가치 위주로 평가·관리합니다.

기존에는 출자회사 신설 후 3년이 지나야 경영진단을 했지만, 정부의 출자회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 규정을 개정해 매년 경영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자회사 관리는 투트랙(two track)으로 하는데 사업 주관 부서는 회사설립과 사업수행을 관리하고, 출자회사 총괄부서는 경영진단을 통해 사업 주관 부서의 출자회사 적정관리 여부를 확인 및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설립이 무분별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설립단

계부터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에게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설립목적에 맞게 출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출자회사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매년 경영개선계획을 보고받고 경영개선을 위한 제언 등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도로 관련 회사인 동시에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회사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지분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투자비용은 324억원인데 차익이 154억원 발생해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성과가 높았고, 목적달성 후에는 지분매각 후 청산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우**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비정규

직을 정규직화해서 자회사를 만든 경우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서 자회사 형태로 설립했고, 이러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우려됩니다.

공기업의 자회사는 본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문제 등 지속적인 비용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축소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회사들은 본사와 달리 경영평가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회사에서의 크고 작은 비위행위 등이 발생하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 판단돼 본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원** 이세우 교수님의 견에 동의합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

으로 노사갈등도 빈번해질 것이고, 노

노갈등도 심화될 수 있어 불필요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회사 형태가 맞는 것이고, 공공성이 없다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궁덕** 민간회사의 경우 특정 사업부서의 성과가 좋으면 독립시키거나 회사

의 성격과 완전히 다르다면 분리하게 되는데, 공기업은 자회사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회사를 정리해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과 협업체계를 가지고 새로운 투자형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회사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엔 기업 성공신화는 많지만, 실패 사례는 그리 많이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자회사를 정리할 때 실패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평가가 이뤄지고 CEO도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실패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실패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근호** 마지막으로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줄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방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세우** 공공기관의 부채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한 부채증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관의 보장성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등 구조적인 원인이 발견되는 기관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제도 개선, 요금체계 개편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부채 감축을 위한 해당 기관의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궁덕**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스스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수립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부채를 감축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김충원** 단순한 부채 절감보다는 기관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과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을 유도하고, 획일적 기준이 아닌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부채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신규

업무를 도전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합하고자 기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도사업을 발굴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평가상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 및 재무관리 방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와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면 다시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설정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체질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재무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특정기관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의 경우 2021년 경영평가 시 계량지표 반영은 최소화하고 비계량적으로 해당 기관의 역할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환** 기관의 부채증가 원인을 확실하게 진단해서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합니다. 각 기관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하며,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투자를 실시하고,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부채 규모를 줄이며, 가치공학(VE)을 통한 원가절감 등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병철**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분류상 같은 유형의 다른 기관들과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상장 공공기관을 별도로 구분해 경영자율권을 주고 이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해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충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근호**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의미 있는 좌담회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수익성 모두 중요하고, 공공기관도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도 사회적 추구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국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재무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의견에는 모두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통해 공생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참여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학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수료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주요 경력

2018~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2010	(사)세계미래포럼 대표
2008	한국거래소 이사장
2003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 정책상황실장(1급 관리관)
2001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공보관, 국제심판관(2급)
1998	주OECD한국대표부 경제참사관(2급)
1995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장
1993	재무부 금융실명제실시단 과장
1975	행정사무관(제17회 행정고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 혁신적 디지털 전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합니다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공사는 2004년 3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이름을 한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사는 크게 네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모기지 공급입니다. 무주택 가구가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보금자리론과 직격대출을 공급합니다. 다음으로, 유동화 증권 발행입니다. 공사는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자본시장에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과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입니다. 전세자금이나 중도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인과 주택건설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인 분들이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우리 공사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정책모기지 313조원, 주택신용보증 384조원을 공급했고, 주택연금 가입자는 7만 3천명을 돌파하는 등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현재 공사의 최우선과제는 무엇이며, 이정환 사장님 부임 후 주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지난해 금리변동에 취약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해 서민의 주거금융비용을 절감하고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기여했으며, 국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을 같은 해 5월에 선보이는 등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협약 전세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불안을 해소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이라는 상품을 출시해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 실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새롭게 출시한 전세지킴보증상품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서울시·부산시 등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택사업자와 수요자에게 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사는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사회 취약계층을 보살피기 위해 펼친 사회공헌활동과 성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공사는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보금자리봉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업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복지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드림하우스’, 주거 낙후지역에 공유빨래방, 공유부엌 등을 조성해 주는 ‘지역 커뮤니티 시설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둘째, 노인복지사업으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한 ‘행복돌봄서비스’와 부산시와 함께 시니어 인력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돕는 ‘소방안전 지킴이사업’ 등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부산시, 경찰청과 함께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및 범죄예방과 동시에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역복지사업으로 부산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초소형 전기차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친환경 전기차 지원’, 지역 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환경사랑 안전지킴이’, 취약계층의 자녀를 위한 ‘지역인재 장학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노력으로 2018년에는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과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2019년에는 부산혁신도시 상생발전 경진대회 ‘부산시장 우수상’과 부산 이 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부산시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산 이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사회적 가치 창출,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는 지난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과 주거 안전망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 저소득 서민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집값이 낮은 순부터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약 23만명의 서민들이 약 3,1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신 스크래핑 기술 등 혁신적인 ICT기법을 금융에 도입해 비대면·무서류 방식으로 대출신청 및 심사를 진행했으며, 공사 홈페이지에서 24시간 대출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획재정부 경제활력투자 및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고, 사회적 가치와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실현한 사업



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거복지 지원이라는 1석 3조의 성과를 견인한 'HF소방안전지킴이'와 지역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인 'HF행복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채권유통시장회의(AFIS), 아시아주택금융기관협회(ASMMA) 연차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

**최근 공사가 제로금리 수준의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발행이 공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공사는 국내 유일의 유동화전문기관으로서 주택저당증권(MBS) 및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커버드본드는 국내 금융위기 및 채권시장 불안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고자 정기적으로 해외발행하고 있으며, 유럽시장 개척 등 투자기반 확대 및 조달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유로화 소설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친 발행으로 유럽시장에서 한국 대표채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해 국내 MBS 과잉공급 우려에 따른 국내 채권시장 수급불안을 해소하고자 10억유로(역대 최대 규모)를 마이너스(-) 금리로 조달하고, 7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억유로 규모의 '비유럽권 최초 코로나19 대응 소설본드'를 발행하는 등 채권시장 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공사의 유럽시장 개척 경험과 발행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는 시중은행 커버드본드의 '자산 감시인'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했으며, 한국물 커버드본드 벤치마크 역할을 통해 시중은행의 성공적인 유로화 발행을 이끌어 정부의 커버드본드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최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이슈가 다시 떠오르면서 “공공기관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책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장님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사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 공동펀드(BEF)',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펀드' 조성 등으로 지역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과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지역사회의 요구 그리고 각종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는 HF드림하우스 사업, 노인일자리 이음사업 등 본업

과 연계한 주거복지·노인복지사업부터 지역농산물 나눔, 부산시 등산로 정비, 장애인 차량지원과 같은 주민지원까지 부산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부산 이전 금융공공기관으로서 부산 지역이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한 금융인프라 조성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AFIS 및 ASMMA 연차총회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해외발행 채권의 계약 서명 행사를 매년 부산에서 개최해 부산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올해 출범한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의 사원기관으로서 국제금융도시 발전 및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과 발맞춰 성장하고자 합니다.

---

**주택연금이 출시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고 매년 가입자가 1만명씩 증가하는 등 주택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에선 주택연금 신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2016년 10,309명, 2017년 10,386명, 2018년 10,237명, 2019년 10,982명 등 연간 1만명 이상이 가입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춰, 조기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제도는 기존의 제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방식으로 변경되면 사전에 배우자를 유언대용 신탁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사망 시까지 자동으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임대가능해져 가입자의 추가 수입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신탁방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관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일관되게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 왔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고객은 더욱 편리해지고, 회사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기법으로 업무가 비대면·비접촉으로 이뤄지다 보니 코로나19에도 자동으로 대응한 셈이 됐습니다. 공사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금융부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고, 나아가 주택금융시장 전체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설립목적에 맞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과 같은 신상품을 출시해 시장경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모든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서민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각자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충실한다면 소외계층을 돌보며 따뜻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레는 내집마련도, 편안한 노후도

# HF에 기대세요!

주택금융의 모든 것, HF한국주택금융공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만기까지 금리변동 없이  
**보금자리론**



당신을 위해 더 쉽고 든든하게!  
**전세자금보증**



내 집에서 평생 월급처럼 받는  
**주택연금**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http://www.hf.go.kr)

☎ 1688-8114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 학력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경제학 석사·박사 수료)  
미국 뉴욕대학교 스텐 경영대학원(MBA)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 주요 경력

2018~현재	한국전력공사 사장
2011	지멘스(주) 대표이사/회장
2007	하이닉스반도체(주) 대표이사/사장
2006	산업자원부 제 1차관

---

한국전력공사

# 바람직한 ‘주식회사 한전’의 거버넌스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

한국전력공사의 역할과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은 1898년 고종황제가 개인자산을 출자해 설립한 ‘한성전기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1961년 전기 3사(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가 합병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창립했고 1982년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공사’이지만 실제로는 ‘주식회사’입니다. 한전은 1989년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했고, 1994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도 상장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력자원 개발, 연구·기술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영업, 해외사업 등이 있습니다.

한전은 ‘KEPCO-A Smart Energy Creator’라는 비전 아래 우리나라 전체 2,300만여 호 고객에게 연간 정전시간 8분대의 세계 최고 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의 전기공급 부문에서 매년 1, 2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은 2001년 분리된 발전 자회사가 담당하며, 발전설비용량은 84GW로 국내 발전용량의 67%이고, 연간 전력판매량은 52만GWh로 세계 8위 수준입니다. 1995년 필리핀으로 진출한 이래 해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 세계 25개국에서 46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도 세계 유수의 전기 유틸리티 업체처럼 전기 유관 신사업 분야로 진출해야 합니다. 한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국민과 국가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사장님께서서는 취임 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탄소배출권의 확대로 환경비용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한전도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마련 중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방향과 추진사항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38%가량 많은 연간 1만kWh 수준이며, 연평균 4.5%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전력소비 증가세가 멈추거나 줄어드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다(多)소비 구조가 갈수록 고착화되고 비효율적인 전력 대체소비로 인해 에너지 수입비용과 환경비용이 증가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전기요금체제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가격에 공급원가 및 외부비용을 적기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수, 전문가, 환경단체 등도 여기에 공감하면서 '합리적 전기요금체제 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전은 원가를 반영하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요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체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통제할 수 없는 원가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과 기업은 가격변동을 예측하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왜곡으로 인한 비효율적 대체소비 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요금체제 개편으로 한전은 재무안정성을 확보해 합리적으로 적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요금체제 개편은 개인·국가·한전 모두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합니다.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신재생발전용량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한전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기반 마련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및 석탄발전소 4기에 대한 LNG 전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외에도 12월부터 3월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거나 80%만 운영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발전 수용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 '1M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대한 접속보장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후 신청된 약 14.3GW의 접속을 위해 계통망을 보강해 약 10.0GW의 접속을 완료했습니다. 아직 연계하지 못한 4.3GW도 변전소를 조기에 건설해 접속지연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재생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및 1.4GW급 ESS(에너지저장장치) 도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한 안정도 저하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신안해상풍력(1.5GW), 서남해해상풍력(1.2GW), 영농형 태양광 등 대규모 해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해상풍력사업은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대규모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민간기업만으로는 수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공동접속설비, 발전사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한전의 기술력 및 자금조달 역량 등을 활용해 발전원가를 절감함으로써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전의 신재생발전사업 참여는 전기소비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사장님께서서는 국내 대기업, 글로벌 기업, 공기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기업을 모두 경영해 보셨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텐데요. 공기업이면서도 한국과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식회사 한전을 경영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객, 국민, 주주를 위한 한전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무엇인지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전은 국내 공기업 중 유일하게 국내와 미국 증시에 동시 상장돼 있으며, 현재 외국인 지분 보유율은 약 18%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는 적정 수준의 이익이 보장되는 재무구조와 꾸준한 배당수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 2년간 영업적자, 투자비 증가 등으로 기업가치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주식회사인 한전은 적정 영업이익을 확보해 투자자에게 이익을 환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려면 그룹사 전체 경영을 최적화해 전력 공급 원가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시장상황과는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면 전력사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해 환경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전기소비자는 훗날 이 자까지 포함해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공익성과 기업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 전체의 공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34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만 상장공기업에 대해서는 가격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좀 더 인정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01년에 원래 한전이 수행하던 발전 부문을 분리해 6개의 발전사를 설립했으나 매각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한전기술 등 4개의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한전이 11개의 한전그룹이 된 것인데, 경영합리화 측면보다는 전기원가 상승요인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전그룹 전체 경영 최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룹사 간 낭비와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은 해외사업, 국내 신재생사업 그리고 R&D 분야에서의 그룹사 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공동연구 및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 중 하나로는 한전 전력연구원에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구축센터를 설치하고, 그룹사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전력그룹사와의 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전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임 이사로 참여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회사에 대한 정부 경영평가 지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발전회사 경영평가 시 ‘전력그룹 공동발전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데, 핵심성과지표(KPI)를 정립하고 이를 독립지표화하는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회사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을 최소화해 전체 전력그룹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11개 회사로 분사됐지만,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해야 불필요한 낭비와 중복 투자를 막고, 전기소비

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전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에너지특성화대학인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전공대의 설립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일까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신설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는 ‘에너지 융복합 전문인재가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에너지전환, 디지털변환 등 지금의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시장을 고려할 때, 미래 인재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는 도전적인 연구를 자유롭게 시도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기술사업화와 창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학과는 시작부터 다른 대학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 관점의 상용연구는 한전 전력연구원이 맡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연구는 한전공대가 맡아 성과를 공유한다면 강력한 에너지 R&D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사례로는 기업과 긴밀히 연계돼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이스라엘 테크니온, 미국 코넬텍 등이 있습니다.

한전공대는 ① 에너지 인공지능, ② 에너지 신소재, ③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 ④ 수소에너지, ⑤ 에너지 기후·환경 등 5대 분야를 중점 연구하는 특화연구소를 지향합니다. 또한 획기적인 창업·산학시스템 등을 통해 에너지 분야 기술 창업과 사업화를 이끌고 세계적인 기업가를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인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에 우수 인재를 공급하고 기술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투자 효율성이 가장 높은 모델의 대학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공공기관장으로서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나 향후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전은 공공기관이면서 국내 주식시장과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다. 외국인 주주 비율이 30%를 웃돌다가 2년 연속 적자로 많은 주주들이 떠나서 아쉽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익성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있듯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주주와 투자자의 감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는 상장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려면 공공기관 규제체계에 상장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제 중에서 상장기업에 맞지 않는 부분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주가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장 공공기관의 주가가 올라가면 대주주인 정부와 일반 주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한전 산하 10개의 자회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의 통제와 평가를 받습니다. 모기업인 한전이 직접 자회사의 사업이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룹 전체 경영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거버넌스 체제하에서는 한전그룹 전체의 경영 최적화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장 공기업에 대한 ‘자율과 책임 원칙’의 확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태양과 바람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탄소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출근하는  
에너지 효율의 시대

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유영섭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사무관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부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 주거복지 로드맵 이행, 한국판 뉴딜 추진, 안전 강화 등 중장기적 투자소요가 반영됐다. 2020년 부채비율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172.2%를 기록해 지난해(167.1%)보다 5.1%p 증가했으나 2024년까지 171.4%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부채 규모는 2020년 521조 6천억원에서 2024년 615조 8천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LH·한전 등 주요 기관의 투자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당기순이익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수입 감소와 정책금융·임대료 인하 등 정부정책 협조 등으로 -3조원의 적자를 보이다가 2021~2024년에는 연 3조 4천억~6조원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부채관리 실적을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과도한 사업비 증액 억제를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마련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함진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사무관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일자리·안전·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 추진의 지속성 확보 및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을 마련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중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하고, 목표 지표를 제시해 이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련성 및 가시적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전, 윤리·공정, 사회적 형평성, 지역상생 5개 분야를 선정했고, 분야별 목표 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임기 내 추진할 목표로 설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에 따른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제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개편

박춘규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과 사무관

최근 국회·언론에서 공공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부정행위가 지적되는 등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조사제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주요 부처와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공공기관과 조사업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기본설계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변경되며, 공공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및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배점을 축소하고, 부정행위 개연성이 높은 현장조사를 줄이며, 전화조사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

소병화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사무관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라는 사전 검증절차를 통해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 등을 통해 예타 결과의 취지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근간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사업비관리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지난 8월 2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이번 지침은 사업단계별 및 공종별 관리, 낙찰차액에 따른 사업비 감액 원칙 등과 함께 일정 규모(30%) 이상의 총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객관적·전문적 타당성 검증 절차인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도록 한다. 동시에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자체적인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해 재무건전성의 원칙과 기관운영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데 주력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총사업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국가 재정을 보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재무 구조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정부도 투자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지침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소통하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가산봉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과 사무관

20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난해 말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의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주민·지자체의 협업으로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해 전 기관에 중점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 간 공동 R&D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의 지역 중소기업 이전 등 다양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또한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 규제 해소 등을 통한 행정절차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을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도 규제 해소 등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재정부 등)·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발족해 우수 사례의 확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신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K-water의 해외 진출과 국제협력



이주환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협력처 글로벌협력1부 과장

## 글로벌 물시장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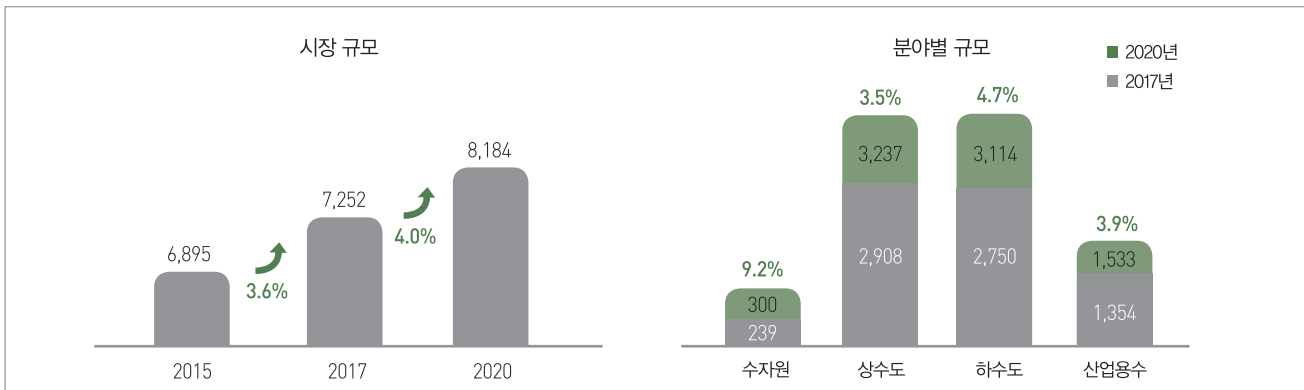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GWI)에 따르면 2020년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8,184억달러 규모로 전망되며, 여타 산업을 능가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는 물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하수도 분야에 1달러를 투자하면 GDP가 약 6.77달러 증가한다고 한다. 이는 타 기반시설 평균값인 3.21달러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상하수도 관련 일자리가 1개가 늘어난다면 간접적으로 다른 산업의 일자리가 3.68개 창출된다고 밝혔으며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인 가이 라이더(Guy Ryder)는 전 세계 물 관련 일자리는 15억개로, 물은 곧 일자리를 의미한다고도 말했다.

최근 물 관련 이슈는 단순한 지역적 '환경 문제'에서 국가적 '정치·사회·경제적 문제'로 그 범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이슈는 에너지·식량·건강·생태·문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물 이슈를 어느 하나의 지역 또는 하나의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논제로 다루고 있다.

전 세계적인 지속적 인구 증가 및 거대 도시화(메가시티)의 형성, 급속한 산업화 등은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연적인 물 공급의 한계와 급증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물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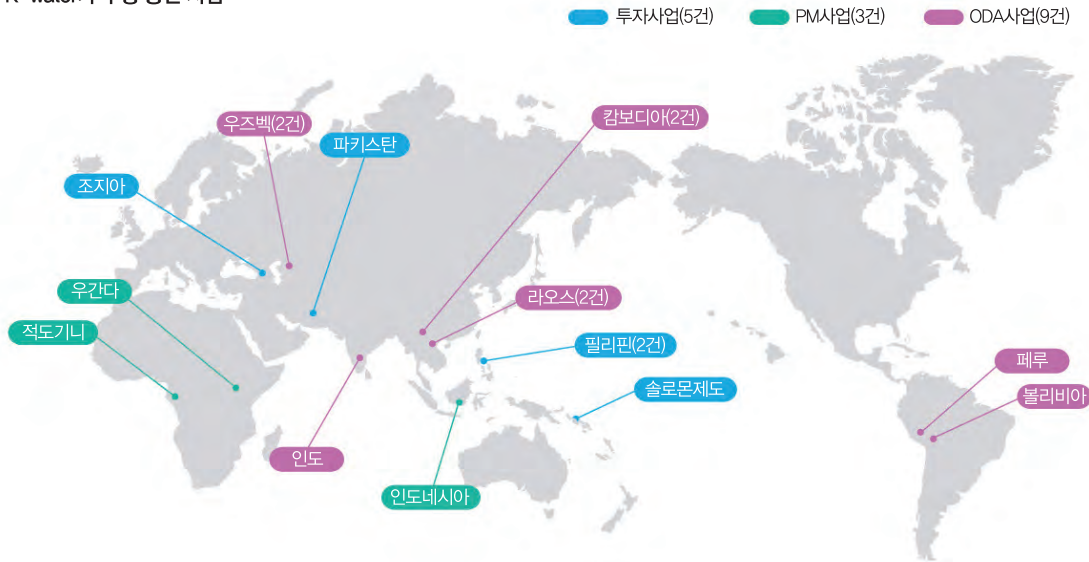
[그림 1] 글로벌 물시장 규모 전망

(단위: 억달러)



자료: GWI 2017

[그림 2] 현재 K-water가 수행 중인 사업



### 국제 물산업 트렌드

최근 전 세계 물산업의 경향은 광역화, 전문화, 협력화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광역화는 지자체 중심으로 분절된 영세한 사업구조에 비효율적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선진 물산업 국가들이 상하수도사업을 통합하는 경향이다. 통합의 규모, 범위 및 진행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3만 6천여 개의 지자체 운영에서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 운영으로 전환했으며, 약 80% 정도를 3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기존의 지자체별 사업 구조를 1973년 10개 유역 중심의 사업 구조로 광역화했다. 또한 이탈리아는 1994년 갈리(Gali)법을 제정해 1만 3천여 개의 사업자를 91개로 통합·광역화했으며, 네덜란드는 수도법 개정(1975년)을 통해 200여 개가 넘는 수도사업자를 2009년까지 10개로 통합했고, 현재까지 10개의 사업자가 네덜란드 전역에서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물기업의 전문화 경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베올리아, 수에즈 등 다국적 물기업과 더불어 브라질의 Sabesp, 이탈리아의 ACEA 등 대형 전문 물기업의 약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Beijing Enterprises Water, Beijing Capital Water, China Water Affairs 등의 등장은 전문 물기업과 같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오늘날 전문 물기업에 의한 상하수도 서비스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14%이며, 향후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2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세계적 선도 물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시 다른 물기업들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한 현지 기업들과의 다양한 제휴 및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물시장에는 민간기업의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PPP 형태의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위험요인을 분산시키거나 공유하는 위험감수자(risk taker) 역할인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윈윈 전략 중 하나로, 다국적 물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빠르게 성장 중인 물시장은 민관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인도 및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들과의 PPP 방식을 통해 국가 물 인프라 사업의 개선 및 자국의 공공·민간기업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 K-water의 해외 물시장 진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는 글로벌 물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축적해 온 국내 물 관리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수출하고 국내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해 국내

물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K-water는 1994년 중국 산서성 분하강유역 조사사업을 시작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해 왔고, 사업 역량 강화와 다변화를 모색해 지금까지 32개국에서 95개의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그간의 해외사업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010년을 전후해 국내기업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하수처리 PPP투자사업에 본격 진출해 PPP에 집중하는 국제 물산업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또한 K-water는 파키스탄에 최초의 해외 투자사업인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사업'을 실시했고 2017년 상업 발전을 개시해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필리핀 앙갓(Angat)댐 수력발전을 운영하고, 조지아 넨스크라(Nenskra) 및 솔로몬 티나(Tina)강 수력발전사업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수자원 인프라 투자사업은 설계·시공·운영 등 국내기업의 참여 범위가 넓고 수행 기간이 긴 편인지라 국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나아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 관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다양한 해외사업에 동반 진출했다.

### 물 문제의 심각성과 전 지구적 확산

세계 물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급증하는 인구나 도시 집중에 따른 물 수요의 증가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인프라 등 물산업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2008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7억명이 아직까지도 안전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없으며, 약 25억명의 인구가 기본적인 위생 시설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한 위험도 커지는 등 물 문제가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식량 생산,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주며, 4차 산업 및 수소가스,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물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은 물론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 문제는 한 국가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물 문

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기후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홍수, 가뭄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정된 수자원을 공유하는 나라가 많아 세계적으로 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300여 개가 넘는 강들이 두 국가 이상에 걸쳐 흐르고 있으며, 해당 유역에 세계인구의 35~40%가 살고 있다. 지난 2006년, 존 라이드 영국 국방장관은 지구온난화로 지구 곳곳에서 사막화가 진행돼 미래에는 물을 둘러싼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물 문제는 단순히 산업의 영역을 넘어 국가 간의 정치·외교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 물 분야 국제협력체

이러한 전 지구적 물 문제는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산재한 각종 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 지구적인 협력방안과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체를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체가 출범했다.

대표적인 범지구적 차원의 물 관리 국제협력체는 2002년 지속가능 발전과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 2003년 출범된 유엔-워터(UN-Water)이다. 2015년 MDGs가 종료되고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2030 Agenda'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됨에 따라 물과 위생을 다루는 SDG 6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통합 물 모니터링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국가별 이행상태를 점검해 오고 있다. UN-Water는 지구적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32개의 UN기구 및 41개의 비UN 파트너기구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회원기관들이 물과 위생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 물 포럼'의 주관 기관이자 1996년에 설립된 물 분야 국제기구인 세계 물 위원회(WWC)가 있다. 정부 간 기구, UN, 정부부처, 학계, 기업체 등 국제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대화를 통해 물 문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계 물 위원회 이사회는 위원회 운영 및 예산 책정 등 의사결정권을 갖는 36개 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부, 한국 물 포럼, 아시아 물 위원회(AWC)가 이사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제 물 콘퍼런스

국제협력체와 함께 각국의 물 관련 기관은 다양한 국제 물 콘퍼런스를 통해 물과 관련된 이슈를 공유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논의하며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국제 물 콘퍼런스인 '세계 물 포럼'은 전 세계 정부 관계자, 수자원 전문가 등이 참가해 21세기 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로, 세계 물 위원회 및 주최국의 물 포럼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해 1997년부터 매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세계 물 포럼은 주제별·정치적·지역별·과학기술 과정으로 크게 나뉘며, 전 세계 물 관련 전문가와 함께 150개국 이상의 각료·국회의원·지자체장 등이 참여한다. 제9차 세계 물 포럼은 아프리카 최초로 2021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Water Security'라는 주제하에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싱가포르 '국제 물 주간'은 비즈니스 성격이 강한 정부 주도의 국제 물 행사이다. 이 행사는 2008년도에 시작돼 2012년에 격년제로 전환됐고, 싱가포르 수자원공사인 PUB(Public Utilities Board)가 주최한다. 'Business, Solution, Technology'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비즈니스 포럼, 물 엑스포, 리관유 워터 프라이즈 및 물 관련 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전 세계 125개 국가에서 2만 1천명의 물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스톡홀름 '세계 물 주간'은 전 지구적인 물 관련 이슈를 다루며 정치적 논의가 활발한 국제회의이다.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WI)가 주관해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



싱가포르 '국제 물 주간'에서의 한국관

다. 본 행사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물, 물과 폐기물, 생태계와 인재개발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열리고 있으며, 2021년에는 '물과 기후변화: 대응 촉진(Water and Climate Change: Accelerating Action)'을 주제로 제30차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 K-water의 국제 물 콘퍼런스 참여

K-water는 저명한 국제 물 콘퍼런스에 참여해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어젠다를 논의하고, 대한민국의 물 관리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제8차 세계 물 포럼 참여 모습

지난 2015년 K-water는 대구·경북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 물 포럼에서 주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 행사에는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헝가리·에티오피아 대통령, 모나코 대공, 모로코 총리, OECD 사무총장, UN 사무부총장, UAE 왕세제 실장 등 각국 정상급 인사가 참여해 세계 물 포럼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네덜란드·이스라엘·싱가폴 등 물 관리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 및 제3국 진출 등을 위해 총 21건의 MOU를 체결하고, 46회의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이 외에도 해외 참석자 중 36%를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의 관심을 기반으로 아시아 물 위원회(AWC)를 창설하는 기반을 다졌다.

K-water는 2018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8차 세계 물 포럼에서 '물의 공유(Sharing Water)'라는 대주제를 기반으로 20여 개의 주제별 과정을 주관하고 참여해 국제적인 물 이슈인 기후변화, 통합 유역관리, 스마트 물관리, 넥서스,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한국의 우수 사례를 논의했다. 한 개의 대주제 및 11개의 소주제 코디네이터로서 11개 세션을 주도해 글로벌 물 이슈와 관련된 대한민국

의 물 관리 역량을 전략적으로 확산했다. 아울러 K-water는 싱가포르의 국제 물 주간과 스톡홀름 세계 물 주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장관급 회담 지원, 고위급 회의 참여, 전시관 운영, 워크숍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대한민국이 이끌어 가는 국제협력

K-water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물 콘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협력체를 설립하기 위해 아시아 물 위원회(AWC)의 창설을 주도했다. AWC는 2015년 한국에서 열린 제7차 세계 물 포럼에서 창립이 발의됐다. 이어 두 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국내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 정부·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회원 간 논의를 통해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화된 운영 메커니즘, 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2016년 창립총회를 통해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됐다.

이후 싱가포르 국제 물 주간 등 저명한 국제 물 콘퍼런스와 연계해 국제사회 활동을 확대해 왔으며, 워터 프로젝트 특별세션 등을 실시해 다양한 글로벌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총 3차례의 총회와 11차례 걸친 이사회, 그리고 '제1회 아시아 국제 물 주간' 개최를 통해 국제 물 협력체로서의 위상을 높여 왔다.

아시아 물 위원회의 가장 두드러진 차별성이라면, 각 나라별 물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회원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 큰 관심과 반향을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성의 중심에 바로 AWC의 6개 특별위원회가 참여하는 '아시아 물 이슈(Asia Water Issues)'와 '워터 프로젝트(Water Project)'가 있다.

먼저, 아시아 물 이슈는 우선실행과제로서 아시아지역 물 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이를 글로벌 어젠다로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워터 프로젝트는 물 문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아시아 물 위원회가 다른 국제 협의체와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콘텐츠이며 여러 기관과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K-water는 아시아 물 위원회의 초대회장직에 이어 2대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아시아 물 이슈를 주도하는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 아시아 국제 물 주간

아시아 물 위원회(AWC)의 가장 큰 성과는 아시아 물 문제 해결



제1차 아시아 국제 물 주간

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국제 물 주간(AWW)'이라는 국제 물 콘퍼런스를 주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WW에서는 아시아 물 위원회 회원기관이 3년간 논의했던 이슈를 중심으로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물 전문가들이 모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2017년 경주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 국제 물 주간'은 '물 문제 해결을 통한 아시아의 공동 번영(Asian Solutions for Water)'이라는 주제 아래 K-water, AWC, 경주시가 공동 주관했으며, 국내외 정부·국제기구·기관·학계·NGO 등 약 70개국 15,500여 명이 참여했다. 아시아에서 세계로 선언문 발표, 주제별 과정, 워터 프로젝트 포럼 등 3개의 주요 프로그램뿐 아니라 5개의 특별세션, 제5차 이사회, 제2차 총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먼저, '아시아에서 세계로 선언문'의 목적은 국내외 다양한 물 이슈에 대한 아시아 국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있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선언문 채택 후, 기관별 우수 실천사례와 향후 선언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참여 기관들과 공유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특히 주요 물 문제에 대한 실행 계획이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참여했다. 다음으로, '아시아 물 이슈'는 다양한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0개 아시아 주요 이슈에 대한 세션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물 문제 해결을 통한 아시아의 공동 번영'이라는 슬로건에 적합한 5개의 메인 주제(물과 기후변화, 물과 하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수생태계 및 수변)를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워터 프로젝트 포럼'의 주요 목적은 아시아 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AWC 회원 국가의 물 관련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데 있다. 다자개발은행이 재원조달 방법과 물 관련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인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렇게 6개국이 물 관리 사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 사업정보 공유 및 G2B 미팅 기회를 제공했고, 총 30여 건, 2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논의되는 성과를 이뤘다.

2020년 10월에는 아시아 물 위원회 주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주최로 제2차 아시아 국제 물 주간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 제2차 이사회

예정이다. 인니 공공사업부장관, 아시아 각국 고위급 인사, AWC 회원 기관 및 아시아 물 관계자, 학계, 민간기업 등 5천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며, 'Sustainable Clean & Sufficient Water for All'을 주제로, 아시아 물 이슈,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포럼, 아시아에서 세계로 선언문의 주요 프로그램, 특별세션, 엑스포 등으로 구성된다.

###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으며 많은 산업 분야에 위축을 가져 왔다. 수많은 국제 물 콘퍼런스와 국제회의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프라인으로 대면하는 방식이 위주였던 국제협력은 온라인 기반으로 변화했고, 규모와 횟수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K-water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 화상회의를 열어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고, AWC의 주요 국제회의인 이사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다양한 국가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구적인 공동 의지를 다져 나갔다.

나아가 최근에는 AWC 이사회도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함으로써 여러 국가의 국회의원, 주한공관 대사, 정부, 학계가 참여해 물 문제 해결을 입법적으로 논의하며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혁신 이야기〉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혁신·협업·시민참여 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인 '2019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에서 발췌했다. 혁신적인 기술과 방법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거나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환경 보호와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증진한 공공기관 사례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공공혁신 이야기

광해방지 신기술 MIRECO EYE와 함께하는 국민 지하안전 확보\_한국광해관리공단

해양사고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소형선박 조난신호 전달체계 혁신!\_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광해방지 신기술 MIRECO EYE와 함께하는 국민 지하안전 확보

## 추진배경

- 최근 도심지 싱크홀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 및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위해(危害) 공동 내부 및 싱크홀을 정량적으로 실측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은 미흡한 상태
  - \*5년간(2013~17년) 전국 4,500여 건의 '싱크홀'과 '경기도 고양시 열배관 사고'와 같은 사회적 문제 발생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로 발생한 싱크홀 조사 및 복구를 위해 MIRECO EYE(지하공동 형상화 기술)를 자체 개발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고, 국가 인증 신기술(NET, 2016)을 획득해 사업에 적용하고 있음

### 광해방지 신기술 MIRECO EYE 개요

- **신기술명** 레이저와 소나센싱을 이용한 폐광산 지하공동 3차원 수치화 및 형상화기술(NET 제1040호, 2016. 12. ~ 2019. 12.)
- **주요 성능** 시추공만 있으면 작업자가 지상에서 안전하게 위험 지하공동의 부피와 형상 정보를 실측·조사하는 국가 인증 신기술



- MIRECO EYE(지하공동 형상화 기술)의 추진 성과를 시설물 관리 주체인 행정관청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도심지 지하안전 확보 및 재난 대처
  - 광업을 넘어 도로 싱크홀 예방, 해양구조물 안전, 지하시설 안전, 군(軍) 안보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진내용

-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고도화
  - 광산, 해양구조물, 도로 등 현장 기능 특화모델로 광업 신기술을 타 산업까지 확대 적용
  - 사용자 중심 기능 고도화로 지반침하 위험지 사전 예측 및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신속 대응
  -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VR, 3D 프린팅)을 융복합해 다자간 소통·협업 강화

### 기능특화 모델 다양화 ) 4개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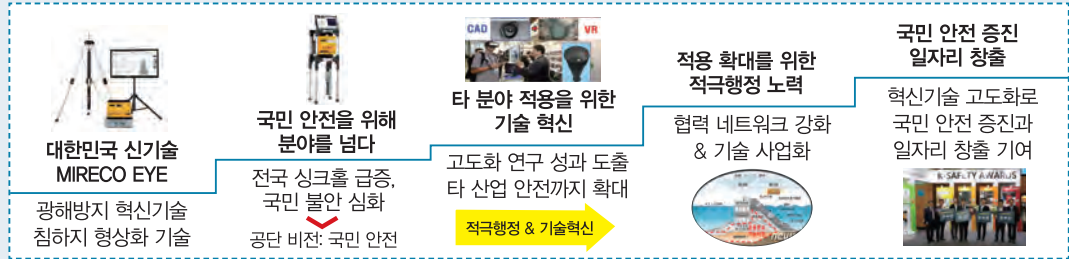
브랜드명	모델 (M4)	추천 사용처
MIRECO EYE	V4.0 (A)	광해·재난·군용
	V4.0 (S)	수충(水充) 공동
	V4.0 (Q)	가행광산, 터널 등
	V4.0 (L)	도심지, 천부 공동

### Android기반, VR·3D프린팅 융복합 ) 분석·응용 강화



〈신기술 모델 다각화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 부처 간 협업 모델로 국가어항시설 노후 방파제 안전진단, 도로 하부 싱크홀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처 가능
  - 국민 안전이라는 시대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타 산업 분야 협력을 유도해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을 통한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한 삶' 보장
-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협업 모델 완성
  - 도로 싱크홀 특화 모델 제조·판매권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함으로써 기술공급 체계 완성
  - 타 산업안전 분야 협업에 민간 고용 창출을 결합해 청년 취업 연계형 협업 모델 구축



〈부처 간 협업 추진 절차〉

## 주요 성과

- (국민 안전 강화) 신기술 보급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지하안전 확보 및 국민 안전 증진

구분	광산 지하안전	해양구조물 안전진단	도로 지하안전 조사	군 땅굴 조사	지하시설 안전진단
실적	기술사업(4)	협약(2), 취업(1), 시범사업(2)	협약(2), 기술이전(1), 취업(2), 정보공유(15)	전문기술 교육(2)	전문기술 교육(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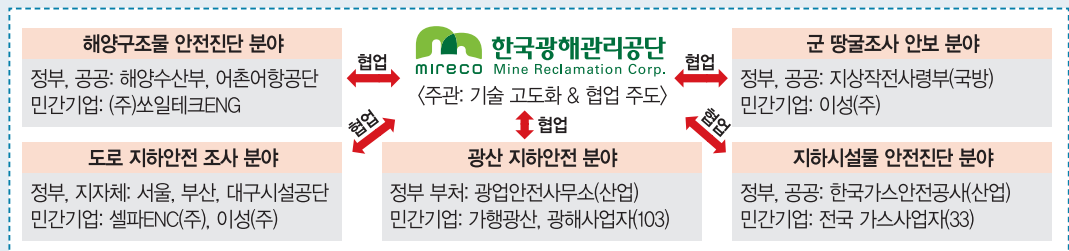
- (부처 간 협업) 민·관·공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문제 해결
  - 세월 등의 위험이 있는 노후 방파제 하부 공동을 광업 신기술 협업을 통해 정량적으로 실측·규명해 국가어항시설 안전진단을 통한 어민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민관 상생 협력) 기술이전(제조업), 고용창출(조사·설계업) 협업 모델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상생
  - \* 타 산업(해양구조물 안전진단)에 공단의 신기술을 활용할 청년 고용 창출[(주)쏘일테크 취업, 2019. 10.]



〈공단의 혁신 및 협업 성과〉

## 향후 계획

- 사용자 플랫폼을 통한 기술 범용화 성과의 빠른 확산·전파로 신규 동반자 및 니즈의 발굴
- 군 안보, 지하시설물 안전진단까지 광해방지 신기술 전 산업 분야로 확대 및 공동 대응



**광업을 넘어 지하안전 강화로**

광업은 인간의 과거 광산 활동 그리고 현재의 삶(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과거 광물자원 채굴과정에서 발생한 지하공동은 사람이 정주하는 지역에 지반침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광해방지 사업은 광산 개발로 인해 국민 건강·생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관리를 통해 녹색생활권 보장 및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및 광산 활황기에 개발된 5천여 개의 미복구 광산이 전국에 산재돼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빈번히 발생해 인적·물적 피해가 생겨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도로 하부의 위험 공동을 실측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발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지하공동 형상화 기술(MIRECO EYE)'은 광산 개발로 인한 지하공동을 탐지하기 위해 시추공에 삽입해 내부를 정밀하게 실측하는 광해방지 신기술이다.

공단이 광해방지사업으로 습득한 기술 경험과 노하우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SOC사업 등 타 산업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광산 지반 싱크홀 사례(충북, 2008)      도심지 지반 싱크홀 사례(인천, 2012)

**광해방지 신기술로 국민 지하안전 협업**

**국가 신기술(NET)로 기술 협업 기반 조성**

지하공동 형상화 기술(MIRECO EYE)은 도면 정보가 없어 지반 침하 복원공사가 어려웠던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량(슬림)화', '정밀화', '자동화'라는 3대 기본전략에 따라 기초 소자, 경량화, 센싱기술, 내수압(IPX8) 성능, 형상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했으며, 폐광산 및 재난 현장에 적용해 그 성능을 입증했다.

이에 기술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12월 국가 신기술(NET) 인증을 취득했다. 신기술(NET) 인증은 기술적 독창성(차별성), 우수성, 파급효과, 시장 경쟁력을 국가로부터 인증받는 것으로서,

기술 상용화 촉진을 통해 안전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현재 도면이 없거나 불확실한 광산 정보로 인해 광해방지사업이 불가능한 폐광산을 조사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 도로 싱크홀 예방조사나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까지 신기술 응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용자 환경 고도화에 주력**

신기술(NET) 인증 이후 공단은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기술을 4가지 특수 모델로 다양화했다. 측정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재 V4.0 모델은 가상현실(VR)과 융복합됐으며,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실측한 지하공동의 형상을 물리적인 모델로 출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몰입감 있게 지하의 위험 공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축소 모형을 만들어 안전대책에 관한 다자간 소통을 용이하게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대응하는 환경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상현실(VR)로 MIRECO EYE 측정 성과를 체험하는 해외 참여자(2018)

**국민 지하안전 협력체계 마련**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국민 안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신기술 보급 및 활용에도 주력하고 있다. 해당 신기술의 고도화 성과를 타 산업 시장에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대외 동반자 관계 구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규모 홍보행사에 참가해 최신 기술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지하공동 형

상화 기술(MIRECO EYE)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힘썼다.

2018년 6월에는 스웨덴의 광업도시 셸레프테오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광업 부문 박람회(Euro Mine Expo 2018)'에 MIRECO EYE를 출품해 선진국(40개 국가) 및 광업메이저 기업(200개 기업)에 한국의 광해방지기술을 홍보했다. 유럽 광업종사자들은 한국의 광해방지 신기술의 기술적 완성도 및 시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공단의 적극적인 기술교류 노력은 협업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결실을 맺고 있다. 2018년 9월 공단은 서울시(안전총괄과)와 도심지 도로 지반침하 예방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이 촉진제가 돼 공단의 광해조사기술은 광업을 넘어 도심지 도로 위험 조사에 활용됨으로써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8월, 공단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국가어항시설 안전조사 업무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어항시설 안전조사에도 광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의미하며, 광해방지 신기술을 활용해 방파제 하부 위험 공동을 규명하고, 위험성을 조기에 진단해 보수·보강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사례이다.

공단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2019 K-SAFETY AWARD 대상'을 수상했다. 이 박람회는 400여 개의 참가기관 및 기업 중 새로운 혁신 제품·서비스·기술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것으로서 한국 광해관리공단이 '2019 올해의 안전제품상'으로 주목받았다는 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소방청 행사에서 '제18회 대한민국 안전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산 및 도로 하부의 위험한 지하공동을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신기술이며, VR 및 3D프린팅 기술을 융복합해 지하공동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킨 혁신적 성과와 광업 이외의 타 산업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적극행정을 통한 공공혁신 지원

2019년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기술지원 및 협력을 확대했다. 일례로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농경지 하부에 위치한 지하공동을 3차원 가시화해 지하공동의 규모·체적 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했다. 2019년 6월에는 강원 삼척시 국도변 하부의 지하공동 규모를 규명하고, 같은 해 9월에는 문경 가은지역의 민간 캠핑장 시설에서 발생한 함몰지의 규모를 밝혀냈으며 함몰지 규모 및 3D 모델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안전한 보장을 지원했다. 또한 10월에는 가평 가행광산의 위험한 수직 공동 내부를 조사해 26만 포인트의 정보를 측정했고, 3D 모델링 성과를 통해 위험 공동의 안전성 검토를 지원했다.

2018년 도심지 협업 네트워크 구축이 시작되면서, 타 산업으로의 신기술 지원과 교류가 활발해졌다. 신기술을 활용해 서울시 관내 도로 하부의 위험공동 106개소가 확인됐고,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판단으로 41개소가 응급 복구됐다. 공단과 서울시는 광역지역의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연도별 조사 계획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예방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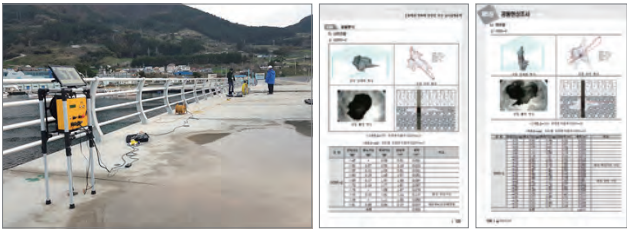
국가어항시설은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시설

〈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신기술 국내외 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

시기	행사명	목적	주최
2019. 10.	GTI EXPO 2019	신동북아 협력·발전·상생	강원도(경제진흥원) 등
2019. 9.	K-SAFETY EXPO 2019	국내 최대 안전 네트워크	행정안전부 등
2019. 4.	광해방지 국내 심포지엄	광해방지 협력 강화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2018. 11.	광해방지 국제 심포지엄	국제 광해방지 기술교류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2018. 6.	Euro Mine Expo 2018	유럽 최대 광업 B2B	Georange 등
2018. 5.	광업협회 100주년 전시회	국내 최대 광업 교류	한국광업협회 등
2017. 11.	지반침하 특별심포지엄	지반침하 전문가 네트워크	한국암반공학회 등



도심 싱크홀 예방조사에 광해방지 신기술을 활용한 지역 및 서울시 동대문구의 지하 공동 측정 장면



경북 울릉군 현포항 방파제 안전진단 기술지원 및 해양수산부 안전진단 성과 보고서(2019) 발췌

이자,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고파랑의 잦은 내습과 방파제 노후화, 피복재 유실로 시설 하부에서 위험 공동이 다수 보고됐으나, 방파제 하부의 수중에 위치한 공동의 정량적 측정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물리적인 안전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내부로 직접 들어가서 조사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공단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협약을 맺어 국가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협력을 이뤘다.

해양수산부의 '동해권 방파제 안정성보강 실시계획용역'을 시범 사업으로 해 강릉 사천진항 외항방파제 하부 공동(1개소)의 규모와 형상을 규명하고, 울릉도 현포항 방파제에서도 발견된 위험 공동(3개소)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설계가 가능해졌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에 불가능했던 국가어항시설 하부의 위험 공동에 대한 정량적 안전성 평가와 보수·보강 설계가 가능해졌으며, 2020년 동해권 국가어항시설 정비 계획에 반영돼 어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 중소기업과 함께 완성한 상생협력 체계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중소기업을 주도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상생발전을 도모했다. 이를 위해 제조 분야 중소기업에 도로조사 분야에 특화된 지하공동 형

상화 신기술 모델인 MIRECO EYE(L)의 기술이전을 시행했다. 기술이전은 광해방지 신기술을 도심지 도로 하부공동 조사 및 시설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기반 공급망을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공단의 부처 간 협업 모델에서 중소기업은 기술사업화의 핵심 주체로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공단은 서울시, 한국어촌어항공단 간 협약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협업 모델을 완성해 왔다. 또한 신기술 전문 운영인력을 민간기업의 고용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8년 도로 지반침하 예방 분야에서 2명, 2019년 국가어항시설 조사 분야에 몸담을 민간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 채용으로 이어졌다.



신기술의 사업화 및 협업을 연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과 채용 사실 확인서(2018~2019)

### 향후 계획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업 및 타 산업 분야에서의 전문기술 지원성 과를 바탕으로 군 땅굴조사 등 안보 분야, 지하시설 안전진단까지 광해방지 신기술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접경지역에서의 군 작전 활동을 위한 장비로 MIRECO EYE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신기술 보급 및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현장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광업 및 타 산업과의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새로운 동반자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 해양사고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소형선박 조난신호 전달체계 혁신!

## 추진배경

- 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나홀로 조업이 증가하면서, 해상에서의 소형선박 어민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
  - 국내 등록된 선박 중 1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6만 5천 척(86%)으로 최근 3년간 소형선박 사고 건수는 4,084건 발생(전체 선박사고의 68%, 해상 인명사고의 80% 점유\*)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자료(2016~2018)

- 정부의 항해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선박 해양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용무전기(VHF-DSC)가 의무 설치돼 정상 운용되고 있음
  - 고령자 1~2인이 조업 중 선박의 충돌·전복 및 익수 등 긴박한 상황에서 무전기가 설치된 선실로 이동해 비상버튼(3초간)을 눌러 조난신호를 발사하기는 매우 어려움
  - ※ 2톤 이상~5톤 미만의 선박에 2015년부터 의무설치토록 고시 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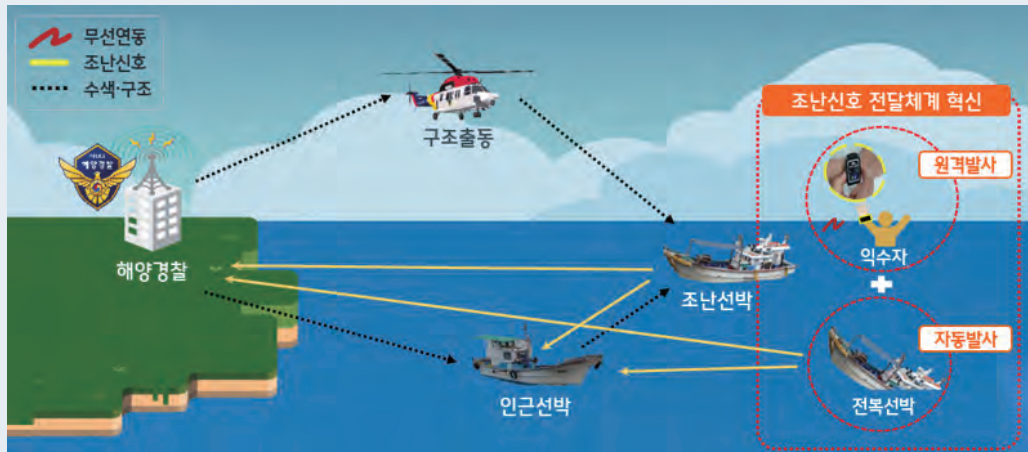
## 추진내용

- 긴급상황 발생 즉시 조난신호를 발사할 수 있는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어촌계 어민참여단 및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기술자문 등 장치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 협의체를 통한 조난신호 전달체계의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및 어촌계 어민 참여단의 의견수렴\* 등 효율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장치개발 계획 수립
  - \* 다양한 해상사고(어업인 선외추락 및 충돌)에 대응한 조난발사 장치 개발 요구
-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비상용무전기(VHF-DSC)와 연동해 긴급상황 발생 즉시 원격 및 자동으로 조난신호(위치·선박명)를 발사하는 장치 개발
  - 조업 중 선외추락(익수) 등 사고 발생 시 조난 위치에서 기설치된 비상용무전기와 연동해 조난신호를 해경 및 주변 선박에 원격으로 발사
  - 원격 발사장치의 사용이 불가능한 선박사고(전복·침몰) 발생 시 선박의 기울기를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사고 순간을 즉각 감지해 조난신호를 자동으로 발사
- 원격·자동 조난신호 발사장치 시제품의 어촌계 어민참여단의 필드테스트를 통한 요구사항(방수, 오발사, 배터리 등)을 반영해 개선방향 도출
  - 조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다양한 인체부착 형태(손목시계, 목걸이) 및 사용시간 증대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으로 개선

- 원격·자동 조난신호 발사장치의 상용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홍보·시연 등 선박안전 관련 박람회 전시 및 홍보영상 제작·방영
  -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2019. 9.) 및 국제해양방위산업전(2019. 10.) 홍보부스 운영, 한국뉴시체널(FTV)을 통한 개발장치 홍보영상 제작·방영(45분 분량)

### 주요 성과

- 해양사고의 유형과 상황에 관계없이 해경 및 주변 선박에 원격·자동으로 구조요청이 가능해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



〈해상조난 및 인명구조 체계도〉

- 국내외 특허등록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을 완료하고, 원천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상용화제품 출시를 지원함으로써 혁신성장 지원
  - \* 국내 특허등록(제10-1995259호, 2019. 6.), 국제 특허출원(PCT/KR2019/013549, 2019. 10.)

### 향후 계획

- 고도화 제품 개발 추진 국내외 홍보 강화
  - 원격·자동 조난신호 발사장치의 기능추가(RFID 등) 등 제품 고도화 및 해양경찰 단속선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맞춤형 장치 개발
  - 원격·자동 조난신호 발사장치를 동남아시아 등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홍보 강화

### ‘나홀로 조업’ 위험… 실종 잇따라

최근 나홀로 조업을 하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15일, 전남 고흥군 앞바다에서 1톤급 어선을 타고 혼자 조업을 하던 선장이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 이보다 하루 앞선 14일, 여주시 안도 인근 해상의 2톤급 어선에서 역시 혼자 작업하던 선장이 사라지는 등 최근 나홀로 조업을 하다 해상에서 실종되는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 소형선박의 위험한 해상조업 환경

나홀로 조업은 보통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너울성 파도 같은 돌발 상황에 취약하고 바다로 추락하거나 어구에 몸이 끼이는 등 사고가 나더라도 구조해 줄 사람이 없어 본인의 생명과 직결된 모든 절차를 혼자 스스로 감수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1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약 6만 5천 척으로 국내 등록된 전체 선박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형선박 사고 건수는 4,084건으로 전체 선박 사고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상 인명사고의 80%는 소형선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자료).

### 소형선박에도 비상용무전기는 있지만…

소형 어선에서 반복되는 해상 인명피해로 인해 정부는 2톤 이상 ~ 5톤 미만의 소형선박에도 비상용무전기(VHF-DSC)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15년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어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갑작스런 법령 개정에 따른 의무설치로 인해 영세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해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비상용무전기(VHF-DSC)란?

평상시에는 선박 간, 선박과 육상 관제기관(어업정보통신국 등) 간 통신수단으로 사용하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버튼을 눌러 관제기관과 주변 선박에 조난신호를 발사해 구조를 요청하는 통신설비이다.

### 소형선박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는 지금도 현재진행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비상용무전기를 최초 설치 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치된 비상용무전기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선박의 종류와 톤수에 따라 1~5년 주기로 무전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맞춰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고민이 시작되다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선박국 검사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비상용무전기의 성능을 상시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에는 정작 사용하지 못하고 인명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일까? 정부의 대응계획대로 비상용무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골든타임 안에 구조가 가능했다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의 고민은 시작됐다.

### 전국에 흩어진 검사관의 힘을 모으다

진흥원은 약 50여 년 동안의 선박국 검사를 통해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춰 온 전파 전문기관이다. 전국 각지에서 약 150여 명의 전문 역량을 갖춘 무선국검사관은 연간 12,500국의 선박국을 검



(지상파 방송 보도자료)

사하며, 만일에 있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비상용무전기를 최상의 성능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에 흩어진 검사관의 힘을 한데 모아 다양한 어민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음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선박국 검사를 통해 성능이 검증된 비상용무전기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긴박하게 발생하는 비상상황 발생(1단계) 시 비상용무전기가 설치된 선실로 이동(2단계)해, 조난버튼의 투명커버를 열고(3단계), 조난버튼을 '3초 이상' 눌러야만(4단계) 하는 절차상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일반적인 4단계 절차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도저히 조난신호를 발송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또한 나홀로 조업 시 어구에 끼어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 절대적으로 조난신호를 발송할 수 없는 때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된 비상용무전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착안해 긴급상황 발생 시 선실로 이동하지 않고도 사고지점에서 즉시 조난신호를 발송하거나 긴급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발송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를 생각하게 됐다.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제품 개발에 반영하다**

이러한 생각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민과 구조기관으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치 개발을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어민들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인명사고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장치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제 사용자의 편의성과 해상 환경 적합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반면, 개발 제품의 가격부담과 사용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제 및 구조기관은 조난신호 오발신에 대한 우려와 조난자의 위치확인 필요성,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조난신호가 수신될 수 있는 제품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등 어민과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도출됐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진흥원은 기존에 설치된 비상용무전기와 연동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한 부가적 장치 형태의 '원격·자동' 조난신호 발사장치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어민 및 구조기관 의견수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민간기업과 힘을 모으다**

소형선박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며 다함께 힘을 모았다. 진흥원은 선박국 통신장비 검사 전문기관으로서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장치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더불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교육 및 기술훈련 전문기관으로서 기술자문과 해상 인명사고 사례를 분석했으며, 해상용 통신장비 전문개발·제조기업인 (주)SRC를 통해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원격·자동 조난신호 발사장치를 개발하다**

드디어 소형선박의 전복·침몰·익수 등 다양한 해양사고 발생 즉시 해경과 주변 선박에 '원격 및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발송하는 장치를 개발했다.



〈원격 발사장치〉



〈자동 발사장치〉

첫째, 손목시계 형태의 원격 발사장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장비가 설치된 선실로 이동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즉시 선실에 설치된 비상용무전기와 연동해 원격 발송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조난자의 위치확인기능을 추가하고 배터리를 일체형으로 제작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양한 인체 부착형태로의 제작 요구에 손목시계형과 목걸이

형 그리고 각 형태에서 발사장치만 별도로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구멍조끼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틱형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어민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인체 부착형 제품을 만들었다.



다양한 형태의 원격 발사장치. 차례로 손목시계형, 목걸이형, 스틱형 제품

둘째, 선박 충돌로 인한 급작스런 비상상황에 대비해 선박의 기울기를 상시적으로 감지하는 센서를 장착하고, 이를 통해 선박의 기울기가 일정한 기울기(선박 복원력 임계각)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발사하는 장치도 함께 개발했다.

특히 개발장치는 구매가격에 대한 어민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해 보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구매가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했다.

### 신속한 해상 인명구조 체계, 미완의 완성을 이룬다

선박 조난신호의 전달 체계는 익수자를 발견하거나 선박 전복사고가 발생할 시 원격·자동 조난신호 발사장치를 통해 사고지점 주변의 인근선박과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하게 되고, 이를 수신한 관계기관은 신속한 구조출동을 위해 사고선박과 가까운 선박 또는 구조기관에 구조출동을 전달하는 체계이다. 이로 인해 해양 사고 유형과 상황에 관계없이 관계기관 및 주변 선박에 선박의 조난 위치와 선박명 등의 조난정보를 즉시 발사해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신속한 해상 인명구조 체계를 통해 미완의 완성을 이뤘다.



〈조난신호 전달 체계〉

### 우수한 국내 기술력,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발사장치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널리 알리고자 각종 박람회에 참여했다. 2019년 9월과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와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은 국내 선박 관계기관과 해경·해군 및 제조사 그리고 수많은 해외 바이어가 참석하는 대규모 전시회로서, 진흥원은 이곳에서 개발제품의 홍보부스를 열고 시제품을 시연했다. 또한 낚시전문채널인 한국낚시채널(FTV)과 협업해 선박사고 발생 유형, 비상용무전기 사용법과 원격·자동 조난신호 발사장치의 홍보영상을 4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해 방영했다.



다큐멘터리 방송화면 캡처

해양안전엑스포 전시 부스

###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지원하다

민관의 힘을 한데 모아 개발한 원격·자동 발사장치의 우수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6월 국내 특허를 등록(제 10-1995259호, 2019년 6월)하고, 같은 해 10월 국외 특허를 출원(PCT/KR2019/013549, 2019년 10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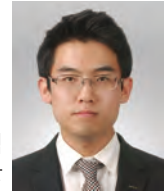
특허 등록이 완료된 원천기술은 영세한 국내 중소기업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은 현재 국내 해경 2,600척 규모의 단속선에 단독으로 납품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에 비상용무전기를 포함한 원격·자동 조난신호 발사장치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관계자와의 업무 지원도 활발히 추진하는 등 국내 및 해외시장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혁신은 단순히 전파관리에 국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해양사고로 인해 단 한 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공공기관 잡앤티톡(Job&Talk)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창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사팀 과장

### 인사담당자 Q&A

####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익 과장입니다. 당사 채용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KOTRA 통상직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통상직은 입사 후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KOTRA에는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통상직 신입사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해외투자 진출 지원 및 시장정보 조사 업무와 외국인 투자유치, 내부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해외 순환근무가 필수인 직종입니다.

#### KOTRA의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직 신입사원에 지원하려면 우선 채용공고상 필수 자격요건인 외국어 성적을 보유한 적격 지원자들만 전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OTRA의 채용절차는 크게 1차 필기시험, 2차 인성검사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3차 영어회화 테스트 및 역량면접, 4차 임원면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형별 합격자 선정 방법에는 이전 전형의 점수가 당해 전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허들식과 각 전형별 점수를 누적해 합격자를 선정하는 누적식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최종 합격자 선정 시 1차 전형 50%, 3차 전형 30%, 4차 전형 20%의 비율로 반영이 되는 누적식 구조입니다.

#### 이전 채용과 올해 채용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난해 채용 대비 절차상 크게 변동된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는 총 50명을 채용하며, 일반 계열의 경우 수도권 인재와 비수도권 인재를 구분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문계열의 경우 매년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선발 언어나 인원이 변동될 수 있는데, 올해는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5가지 계열에서 1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필수요건 중 하나인 영어성적에서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사에 도움이 되나요?

KOTRA는 토익(또는 토플이나 텡스)과 토익스피킹(또는 오픽) 성적을 필수로 보유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토익스피킹(또는 오픽)은 기준 성적만큼만 취득해도 무방하지만, 토익(또는 토플이나 텡스) 성적은 필기시험 전형에서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KOTRA는 온라인 접수 후 꼭 예비소집일에 참석해야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KOTRA는 별도의 서류전형 없이, 어학 등 자격요건을 갖춘 모

든 지원자에게 필기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응시 전에 미리 지원자들의 계열 및 지원사항 등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전 본인 확인 및 필적조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 비소집일에는 별도의 상담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공사 업무 및 채용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교시에 치르는 경제논술은 국내외 경제·통상 이슈 및 주제에 관한 경제지식, 논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경제논술은 일반계열과 어문계열 지원자 모두 치르게 됩니다.

2교시에 일반계열은 직무역량평가를, 어문계열은 쓰기능력평가를 보게 됩니다. 직무역량평가는 공사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평가하는 논술형 시험으로, 공사 직무와 관련된 내용은 채용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직무기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

기능력평가는 어학 능력을 평가하는 서술형 시험으로, 한국어를 해당 언어로 번역하는 유형, 해당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유형,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해당 언어로 작성하는 유형 등이 출제됩니다.

### 인성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무엇인가요?

인성검사는 공사 핵심가치 적합도 등을 평가하는 검사로, 정답은 없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단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6가지 영역(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영어회화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어회화 테스트는 원어민과 일대일 또는 다대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문적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외국어 구사 능력



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량면접 진행 방식도 궁금합니다.**

역량면접은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활용해 진행됩니다. 지난해에는 그룹토론, 발표면접, 상황면접 및 경험면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룹토론과 발표면접은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면접관들에게 발표하거나 조원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치뤄졌습니다. 상황면접은 특정 상황에서의 판단·행동에 대한 결정사항을 묻는 형식이며, 경험면접은 직무 관련 경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관문인 임원면접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원면접은 다대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합니다.

**인사 담당 실무자로서 어떤 인재를 채용하고 싶으신가요?**

공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국제적 안목과 네트워킹 능력,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사고를 기반으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채용공고에 게재된 직무기술서 상에서 공사 신입사원이 갖춰야 할 능력단위, 필요지식,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KOTRA 입사를 준비하는 지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까요?**

공사 입사 전, 공공기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 공사의 주요 고객 및 업무 특성 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를 요구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공사의 주요 역할 및 특징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고민한 후에 지원한다면 채용 준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통상직의 경우, 해외 순환근무가 필수인 점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개**

**KOTRA 소개**

KOTRA는 84개국 127개 무역관과 12개 지방지원단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수출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 투자 지원, 글로벌 일자리 창출, 경제통상협력을 통해 국내외 고객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돕고 있는 무역투자진흥기관입니다.

**KOTRA의 비전 및 핵심가치**

**비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일류 무역투자진흥기관

**핵심 가치**



**KOTRA의 인재상**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비즈니스 창조자

**KOTRA 통상직 신입사원 채용 트렌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열린채용·블라인드채용을 기반으로 인재를 선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별도의 서류전형 없이 응시요건만 갖추면 예비소집 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면접전형에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사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구조화된 면접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고 공정·투명한 채용을 위해 앞장서는 KOTRA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잡앤티톡(Job&Talk)



이현우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사부 과장

## 인사담당자 Q&A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 이현우 과장입니다. K-SURE를 이끌어 갈 인재를 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돼 큰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 필요한 인재를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무역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무역보험은 전쟁, 모라토리엄(지급 유예 또는 지불 유예), 거래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제거하는 기능과 무역,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외거래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수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K-SURE 인재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무역·투자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전문인: 무역금융을 선도하는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인재
- 혁신인: 변화와 혁신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인재
- 윤리인: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소유한 인재
- 국제인: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인재

### K-SURE의 채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직 5급 채용을 기준으로 서류전형, 필기전형, 실무면접전형, 임원면접전형 총 4단계로 진행되며, 임원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를 선정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재 채용을 위해 NCS 기반 블라인드채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사지원 단계에서는 직무능력과 무관한 나이, 사진,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필기 및 실무면접 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반기 채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필기전형의 경우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능력평가, 직무능력논술, 영어(공인어학성적 대체)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고, 각 모집 분야별 전공 지식을 직무능력평가 및 직무능력논술로 평가합니다.



실무면접의 경우 역량면접과 팀프로젝트 면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역량면접의 경우 4~5명이 1개 조로 구성되며, 먼저 개인별로 입장해 직무 관련 주제로 PT 면접을 치른 후 자기소개서 기반 개별질의 및 응답을 진행합니다. 그다음으로 조원이 모두 입장해 집단질의를 실시합니다. 팀프로젝트 면접의 경우 5~7명을 1개 팀으로 해 제시된 직무 상황과 관련된 팀별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들의 창의력, 팀워크,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량면접 및 팀프로젝트 면접 결과를 합산해 실무면접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필기 및 실무면접 전형의 구체적인 절차 및 구성은 채용시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에 따라 채용절차 및 구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 또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이나 취업 준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준비에 불확실성이 커져 지원자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공사는 올해 채용에 2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영어성적 사전제출 제도'와 '차기 응시기회 제공 제도'입니다.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의 일부 평가항목인 영어성적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어성적 사전제출제도를 운영해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영어성적을 보유한 경우 진위 여부 확인을 거쳐 DB에 등록하고 하반기 채용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또는 당일 유사증상 발현으로 전형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한 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차기 채용에 지원 시 해당 전형에 대한 응시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지원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갑작스레 닥친 위험에 이 제도로나마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K-SURE 입사 후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우리나라의 무역 및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보험·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신용평가, 보험·보증 상품의 인수 및 보상, 채권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무역보험이라는 업무가 매우 생소하고 처음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게 많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에서는 다양한 사내외 연수제도와 OJT(직무 간 훈련), 자율학습조직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서류전형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우리 공사와 지원자의 첫 인사이자 향후 면접 자료로도 활용되는 만큼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는 지원자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내

용을 담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공고 등에 게시된 직무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해 우리 공사의 업무와 자신이 지원하는 모집 분야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직무와 연관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은 더욱 힘든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뭄 뒤에 달콤한 열매가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좀 더 힘을 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사도 채용과정 중 지원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소개**

**K-SURE 설립목적**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무역투자보험기관

**전 세계에서 K-SURE의 위치는?**

K-SURE와 같이 무역보험 등 수출신용 공여를 담당하는 기관을 ECA (Export Credit Agency)라고 부르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유럽,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대양주, 중동 등 전 세계 68개 나라에 83개의 ECA 기관이 각국의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K-SURE는 2018년 지원실적(1,371억달러) 기준 전 세계 83개 기관 중 5위 규모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ECA 기관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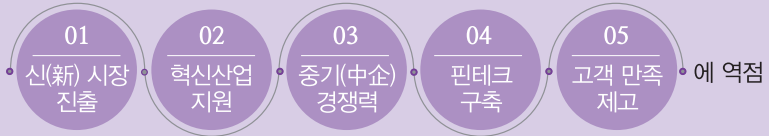
**K-SURE 비전 및 경영목표**

**비전**

국민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무역·투자·금융 안전망

**경영 목표 및 전략**

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지원을 경영목표로 하며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지원자격

- 학력, 전공, 외국어 등 제한사항 없는 열린 채용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돼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우대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 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이수자
- 공사 주최 대학(원)생 무역보험 논문 공모전 우수 이상 입상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 모집 분야별 직무 유관 자격장 보유자

# 대졸 취업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편견은 No No No!



정동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발전소운영실 화학기술부 주임

※ 이 글은 '2019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고졸채용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을 전재한 것입니다.

## “고졸 취업은 탁월한 선택이다.”

고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지금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고졸 취업은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졸 취업 7년차, 제 이야기가 후배분들의 미래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고졸 취업을 선택하기까지

중학생 시절 저는 공부에 욕심이 많아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진학을 두고 부모님과 많은 갈등이 생겼고, 결국 대학비용에 대한 부담과 빠른 경제적 독립을 원하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마이스터고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좋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고졸 취업을 선택한 사람도 적잖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 선택하지 못한 길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취업을 하고 보니 전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대학교를 다닐 수 있고, ‘선취업 후진학’만의 장점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 선진학으로는 가질 수 없는 ‘선취업 후진학’의 매력!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닌다니 “피곤해서 공부가 되겠어?” 등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일반 대학생보다 조금 더 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단점을 상쇄할 ‘선취업 후진학’만의 장점이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미래 설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 후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면, 어떤 식으로 경력을 쌓아나갈지 커리어 맵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지 불투명한 대학생과는 달리 이미 회사에 취직하였고, 어떤 직무가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과에 진학하여 무엇을 배워야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목적의 전공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입니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입사하여 몇 년 근무하다 올해 울산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영학과 야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취업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배우고 싶은 내용보다 취업이 용이한 과를 선택하여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조기졸업을 목표로 학점 4점대 유지 및 학점을 꼭 채워 수업을 듣고 있지만, 조기졸업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시험에 연연하는 공부를 하지 않고 배우고 싶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점도 ‘선취업 후진학’만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 ‘선취업 후진학’ 실제로 해보니 어때?

저는 대학생활을 통해 높은 통찰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길 바라였고 1년 남짓 다닌 지금,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 평소 관심 있는 분야만 편향되게 지식이 늘어나기 십상인데, 대학교에서 정해진 각종 교양수업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어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전공 수업을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더 높은 이해도를 갖게 되었고, 회사 입장에서 좋아할 답을 도출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대학 수업을 들

을 때도 막연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회사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 좀 더 열정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커다란 변화는 셀프리더십을 가지게 된 점입니다. 하는 일과 공부에 대해 스스로 동기부여를 가지게 되었고 자기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 아침운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가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학은 단순히 취업의 수단이 아니라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에 고졸 취업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다더라도 꼭 학업을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선취업 후진학'을 적극 추진하기에 학업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쓰는 것에 눈치를 보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취업 후진학'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야간대학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인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사 - 학교 MOU 협약을 통해 계약학과를 개설하기도 할 정도로 지원이 적극적입니다. 제가 다니는 한수원의 경우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부산대 '발전공학과' 등의 계약학과를 개설하여 기술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 고졸 직원들에게 배움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계약학과와 경우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선취업 후진학'의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경험이 대학 진학에 아쉬움이 남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으려면 여러 회사를 경험해봐야만 하 나요?”

구직을 앞둔 고졸 취업자분들에게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입사지원서를 넣으면서도 업무가 나에게 맞지 않을까 걱정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직활동 중에는 어디든 취업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꿈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중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으니, 일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업무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고, 적성에 맞아야 합니다. 여러 회사를 경험하지 않고도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대졸자에 비해 여러 기업을 경험해 볼 기회가 적으니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용공고의 직무설명서 정독과 '알리오' 사이트 활용이 그 방법입니다. 알리오(www.alio.go.kr)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위해

각종 정보들을 민간에게 공개하는 사이트로 회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직제규정'에서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회사 업무와 나와의 적합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자소서,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표현으로 회사에 대한 나의 애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 ‘내가 이러려고 회사에 왔나? 사회 초년생의 잘못된 생각

처음 입사하고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취업에 성공했는데 부서에 배치 받고 보니 서류정리, 복사, 스캔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 혼자 별로 일이 없어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러려고 회사에 왔나?'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고졸 직원이라 간단한 일만 맡기나 싶은 피해의식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 돌이켜보면 잘못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를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팀 분위기와 팀원의 업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적응한 후 선배들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지식을 나눠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힘든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은 선배들의 배려이며 고졸, 대졸 구분 없이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신입 직원이 회사에서 1인분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5년~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사 초기에 허드렛일을 하거나 맡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성공적인 '고졸 취업' 문화 형성을 위한 한 가지 약속

고졸 취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활성화된 것은 불과 9년 전 일입니다. 아직 회사 내 고졸 취업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앞서 취업한 고졸 선배들이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여 헛되이 시간을 보낸다면 대학 과정을 거친 직원에 비해 능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졸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자기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뒤이어 들어올 후배분들이 차별 어린 시선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고졸 취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취업 후 '4년 이상'은 능력개발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커다란 로마제국도 자그마한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끝은 창대한 대기만성형 인물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채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활동협력부 사원

※ 이 글은 '2019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고졸채용 부문 우수상 수상작을 전재한 것입니다.

## Prologue

고등학교 2학년 국어시간에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낭송했다. 당시에 나의 힘든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취업이라는 꽃이 피길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

## 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 루이 파스퇴르

중학생 때부터 일찍 사회에 나가 나의 재능을 사회에서 발휘하고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 또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꾸준히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기에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했고 공공기관에 입사하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고교 생활을 시작했다. 학교 취업부장 선생님께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을 볼 때마다 하셨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했다. 매일 7시 50분에 등교하여 학습준비를 했다. 아침 시간엔 주로 경제신문을 읽고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학습시간엔 교과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방과 후 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엔 10시까지 내신 공부를 했다. 집에 와서는 가방을 놓고

독서실에 가서 문을 닫는 2시까지 내신이나 자격증 공부를 했다. 그리고 2시 반쯤 잠들어 6시 반까지 4시간을 자고 일어났다. 성실한 고교 생활을 한 결과, 내신 상위 4%, 자격증 12개 취득, 교내 상 20여 개 수상을 할 수 있었다. 성실함이야말로 사회생활에 있어 최고의 무기 아닐까? 덕분에 다양한 증표를 만들며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 잘하는 분야를 찾아낼 수 있었다. 공부를 한 결과 나는 금융을 좋아하고 회계를 잘하였다.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에 매력을 느껴 은행 텔러, 펀드 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 금융 관련 자격증을 5개를 취득하였다. 꼼꼼한 성격은 회계 공부에서 나타났다. 모든 회계 과목에서 성취도 A를 받고 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교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나의 꿈이 회계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구체화되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각이 잡힌 후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사회생활에 있어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 미리 연습을 하고 싶었다. 교내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 부단장을 맡아 동아리 부원들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동아

리 원들과 다양한 친목행사를 만들어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생각하여 말하고 상대의 생각을 듣고 조정하는 능력과 더불어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고 발표하였다. 보다 나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뜻깊은 활동이었다.

활동을 하며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꿈이 희미하게 생겼다. 꿈을 위한 준비를 위해 내 시간을 쏟고 있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예산/회계 분야 고졸 채용 공고가 나왔다. 공고를 보자마자 이 자리는 나를 위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최선을 다해 입사 준비를 했다. 자기소개서, 필기시험, 토론면접, 임원진 면접 모두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다. 나의 정성과 노력을 면접관들이 알아봐 준 것일까. 나는 전국 1명 채용 자리에 합격할 수 있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졸업 예정인 고졸 구직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을 요약하면 첫째,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보고 꿈을 찾으라는 것이다. 도전을 해본 것 중 자신의 적성에 잘 맞지 않은 활동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도전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 또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많은 도전 끝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전 끝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는 것이다. 면접관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에 최선을 다해라. 셋째, 혹여나 취업 과정 중 불합격을 겪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라. 꿈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더욱 더 준비에 박차를 가해라.

## 2. 성공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성취될 때이다

### - 빌 게이츠

2018년 6월 29일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이 오기 전, 채용형 청년인턴으로 첫 출근을 하였다. 나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발령이 났다. 센터로 가서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를 하며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 느꼈다. 회계 프로그램을 다룰 때 전산회계 1, 2급 자격을 공부하며 배웠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회계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업무 시 엑셀과 한글을 자주 다룬다. 컴퓨터 활용능력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놔서 크게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다. 회사 선배들께서 엑셀을 잘한다고 칭찬해줘서 뿌듯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은행에 방문해서 업무를 본다. 은행 텔러 등 금융 관련 자격증을 따놓고 학교에서 청구업무 관련 공부를 해서 은행 방문 전 준비를 수월하게 해 업무처리를 물 흐르듯 할 수 있었다. 또한 회사 선배님들이 모르는 금융 관련 질문을 와서 나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그때마다 답변해주면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써먹을 수 있어 뿌듯했다.

5개월간 청년인턴을 생활하며 느꼈던 불편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서 기록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과정 중 하나인 연구과제 발표 때 발표했다. 회사의 예산/회계 체계를 도식화하고 회계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신입 직원에게 지출결의서 작성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나의 노력의 평가가 합산돼 11월 28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날은 나의 생일이었다. 정규직이란 큰 선물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로 와서 벅찼다.

회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활용하는 사람이 되자는 다짐을 했다. 회사를 다니며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현실에 적용하여 하는 업무도 있지만 깨우치며 배워야 하는 부분도 많았다. 그래서 업무 시간이 끝나고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찾아서 들었다. 기획재정부의 'e재정배움 사이트'에서 예산의 기초, 국가재정법의 이해, 국고보조금의 이해 강의를 들으며 이론을 배우고 업무에서 다양하게 활용했다. 센터 내 예산관리를 담당하여 재정운영 성과와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회계 담당으로서 「국가재정법」을 해석하며 회계문서를 검토하고 지출원·지출관으로서 e나라도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출했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찾아서 출장을 가 직접 배워와 실무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급여 담당으로 연말정산 실무 교육을

받고 2018년도 센터 연말정산을 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직원들의 궁금증을 답변해 줄 수 있었다. 또한 2019년도 연말정산 및 개정 세법 교육을 듣고 세무 업무를 바르게 처리했다. 국가 회계 재정통계센터에서 하는 국가 회계이론·실무 교육을 들으며 기업회계와 국가 회계의 차이점을 배웠다. 감사교육원에서 공공기관 회계실무자 회계감사 교육을 들으며 감사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배웠다.

예산/회계/세무/급여 관리의 담당자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회사의 돈을 관리하며 경제학과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 추후에 업무에 완전히 적응이 된 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계획이 있다. 내 꿈이 자금 관리 전문가로 깊어졌다. 나의 자아실현이 이 회사에서 배우고 업무를 하며 이루어졌다.

### 3. 당신이 젊은 시절 꿈꾸었던 것에 충실하라

#### - 프리드리히 실러

19살부터 입사해 근무하여 회사 선배님들께선 대단하다고 격려해주신 좋은 선배들이 많았다. 하지만 고졸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경향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다. 그렇기에 대학에 대한 동경도 생기고 자격지심 때문에 우울했던 날들도 있었다. 근본을 해결하려면 무시하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 대 사람, 담당자 대 담당자로서 존중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제안

하자면 첫째, 고졸도 대졸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튜브나 방송을 만들어 차별 인식을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 둘째, 국가적 위치에 고졸자 의무 고용비율을 두어 고졸자도 위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셋째, 고졸 근로자가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대학에 가기 힘든 근무환경에서 근로하는 고졸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면 좋겠다. 고등학교 시절 꿈꾸던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대학 공부를 하는 나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하겠지만 국가적으로도 나와 같은 고졸 근로자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

#### End

올해 4월 봄 벚꽃이 만개할 때, 사회 공헌을 하였다.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활동과 사회에서 한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취업이라는 꽃이 피었으니 매일 감사해하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나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많은 고졸 취업 준비자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또 많은 고졸 근로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리를 빛내주길 바란다. 국가에서도 고졸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글을 마친다.○



2020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 자원으로 돌리자

Reduce Reuse Recycle Recovery



지구를 위한 실천, 사실은 우리를 위한 선택  
자원순환 실천 함께해요



## 약속하기

지구를 위한  
약속에 서약해 주세요



## 실천하기

플랫폼이나 SNS에  
실천을 인증해 주세요  
#자원순환 #자원순환플랫폼



## 이벤트 참여하기

서약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매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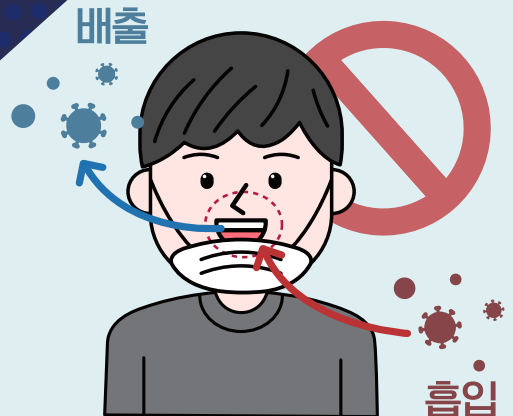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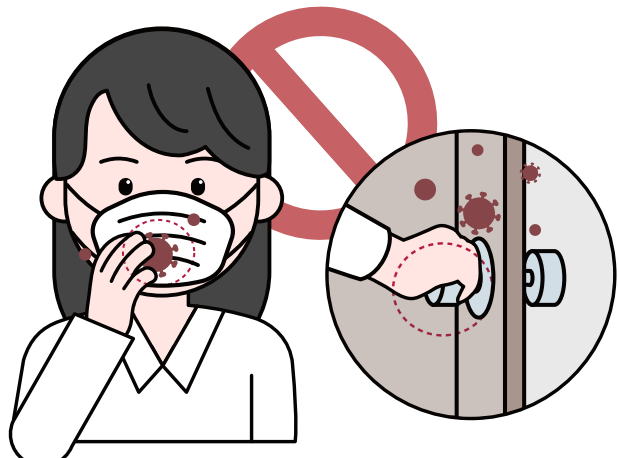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